

문화 서울

문화+서울

서울,
예술이 되다



3 SEOUL +

- 04 이달, 주목할 문화예술 소식
- 07 인포그래픽
먹고 쇼핑하는 서울을 넘어, 문화예술 수도로
- 20 문화의 창
하늘 한 조각
A Scrap of Sky

1 FOCUS +

예술로 물든 가을,
도시를 춤추게 하다

- 36 예술로 물든 가을
'서울'이라는 무대를 즐기는 법
큐레이션으로 보는 2026 서울어텀페스타
- 44 도시를 춤추게 하다
광장에서 강변으로, 한강에서 즐기는 서울거리예술축제2026
From the Plaza to the Riverside,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26 at the Han River

2 ARTS +

- 08 예술가의 진심
전민철, 한국 발레가 기다려온 왕자의 탄생
- 16 복지국가와 예술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
- 54 예술인 아카이브
김현진
- 56 예술인 아카이브
남경진

3 CULTURE +

- 18 예술이 흐르는 길목에서
축제를 만든다는 것은
- 25 페이퍼로그
또 하나의 전시를 만드는 '해결사'
장래주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 출판기획팀장
- 28 인사이트
서울 서남권을 잇는 예술의 가능성
2026 금천 미술벨트
- 52 해외는 지금
맨체스터 데이에서 발견한 전진의 미학

서울거리예술축제2026



서울
예술이
되다

2026.9.19.토-20.일



서울
문화재단



SEOUL
MT SOUL

뚝섬한강공원, 서울숲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26
19 Sat - 20 Sun, Sep 2026
Ttukseom Hangang Park, Seoul Forest



주최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 주관 서울문화재단
Organiz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Host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

SEOUL +

이달, 주목할 문화예술 소식

서울스테이지 in 어텀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서울의 시간, 노래가 된다'를 주제로 서울이 품은 찬란한 이야기가 무대예술로 펼쳐진다. 과거(조선의 역사)와 현재(서울의 오늘), 그리고 미래(내일을 이끌 차세대 예술인)를 하나의 줄기로 잇는 완성도 높은 뮤지컬을 통해 웅장한 감동과 특별한 가을 숲속 피크닉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 9월 18일에는 서울어린이취타대의 공연과 댄스뮤지컬 <조선세프 한상궁>, 19일과 20일 주말에는 서울어텀페스타 및 서울거리예술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9월18일부터 20일까지 | 서울숲 야외무대 | 02.758.2075

E

옥상 밭 고추는 왜

연출 김광보

2026.9.19.-10.4.

대학로극장 퀼드

2026 퀼드, 연극의 질문들:

진화하는 텍스트

Q

QUAD

대학로극장 퀼드 기획

월일, 19:30

수일, 15:00

19:30, 15:00

정액 50,000원

관람인원

당 13세 이상

예매: QUAD.ORG.KR

NOI, 티켓

문의: 1577-0369

퀼드, 연극의 질문들: 진화하는 텍스트

초기술 시대에 연극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대학로극장 퀼드가 기획한 '퀼드, 연극의 질문들: 진화하는 텍스트'가 9월 본격 막을 올린다. 첫 순서로 김아라 연출의 <The sound of Macbeth>가 9월 8일부터 13일까지 공연된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으로, 정동환·김성녀·송용진 등 배우가 출연한다. 이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김광보 연출의 <옥상 밭 고추는 왜>가 무대에 오른다. 번두리 빌라에서 벌어진 고추 도난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도덕적 민낯과 윤리적 딜레마를 다룬 작품이다.

공연별 일정 상이 | 대학로극장 퀼드 | 1577.0369

신당창작아케이드 오픈스튜디오 <신당 연당>

2009년 개관한 서울시 대표 공예·디자인 전문 창작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가 작업실을 활짝 연다. 오픈스튜디오 <신당 연당>을 통해 입주작가 35명의 작업실을 개방해 작가와 관객이 만나는 장을 마련했다.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입주작가의 공예 작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아트마켓, 그리고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월 5일과 6일 | 신당창작아케이드 | 02.2232.8834

문래예술제

'문래 철공소 골목 위, 거침없이 튀어 오르는 예술!'을 주제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문래동 골목 일대에서 문래예술제가 열린다.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문래 하이퍼링크'는 지역 갤러리 참여 전시를 중심으로 예술기술 융합 기획전, 소공인 특별전, 현대미술 기획전 등 다채로운 협력 전시로 꾸며진다. 더불어 작가의 작업실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하는 오픈스튜디오, 골목 벽면을 빛으로 수놓는 미디어 파사드, 문래동 골목의 운치를 채워줄 음악 공연인 문래 시티팝 페스티벌과 숲세권 라이브, 풍성한 폴리마켓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인스타그램(@mullae_art_festiv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리풀청년예술단 예술가곡 시리즈 3

<가을, 세계의 노래를 만나다>

소프라노 황수미가 음악감독이 돼 이끄는 청년예술가들의 세계 가곡 무대가 펼쳐진다. 서리풀청년예술단 예술가곡 시리즈 3 <가을, 세계의 노래를 만나다>를 통해 이탈리아와 스페인·폴란드·러시아의 언어와 선율을 따라 세계 가곡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전한다.

공연은 전석 무료.

9월 29일 오후 7시 30분 | 반포심산아트홀 | 02.3477.2805

충무 인사이트

중구문화재단 9월부터 충무아트센터에서 인문 예술 아카데미 '충무 인사이트'를 선보인다. 각 분야 전문가 6명이 전하는 명품 강연 '인사이트 토크'부터 감각을 채우는 실기 클래스 '인사이트 아트'까지. 예술을 듣고, 느끼고, 담아내며 일상 속에 깊은 영감을 채워줄 클래스를 만나보자. 중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제5회 신진 청년작가 공모전 선정작 릴레이 전시

성동문화재단은 제5회 신진 청년작가 공모전을 열고, 선정작 릴레이 전시를 개최한다. 시각예술 분야의 역량 있는 청년 작가를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은 릴레이로 한 주씩 개인전을 개최해 새로운 예술적 시선과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9월 7일부터 20일까지 | 성수아트리에 | 02.2204.7553

04

05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시민 참여 프로그램 '서커스 피크닉'

우리 가족이 하나의 서커스 팀이 되는 특별한 하루! 주말을 활용한 서커스 원데이 클래스 '서커스 피크닉'이 열린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서커스의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며 서로의 과정을 응원하는 참여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저글링, 접시돌리기, 에어리얼 실크 등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서커스 종목을 함께 경험하면서 새로운 즐거움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5인 미만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9월12일부터11월8일까지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02.3437.6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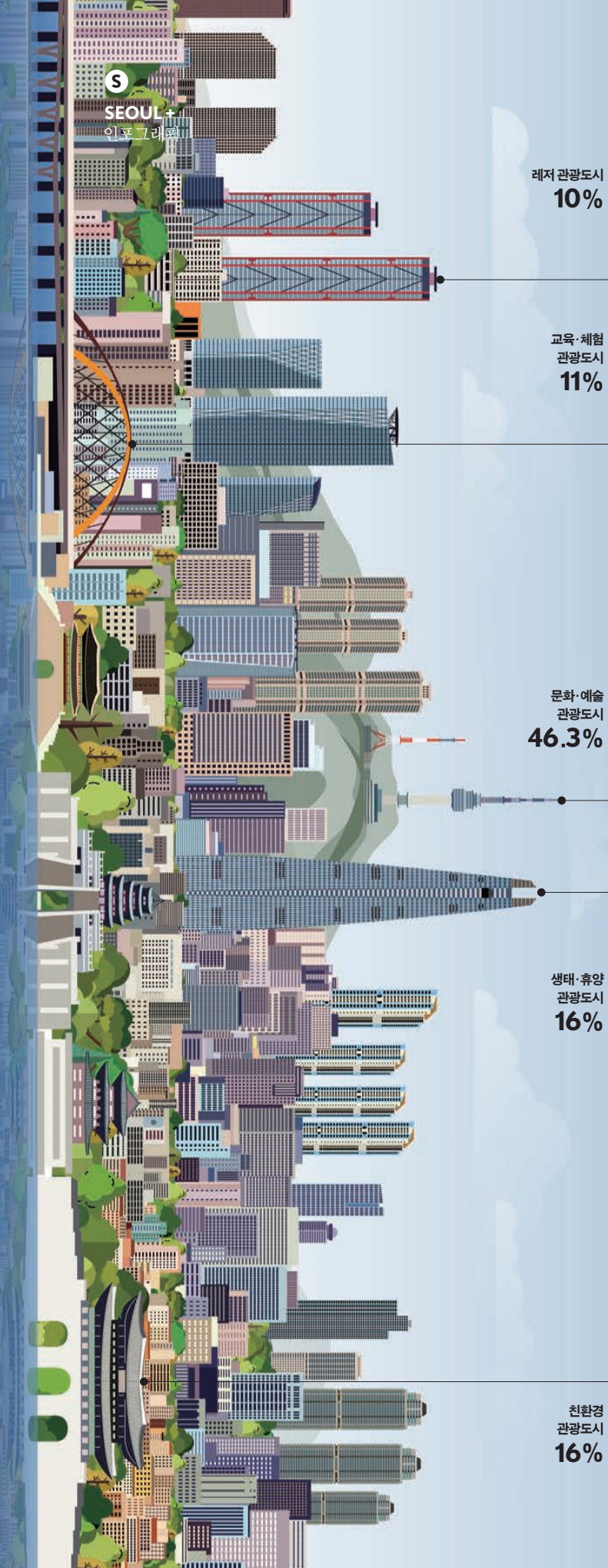
박서보미술관 개관전 <박서보와 호영 도인: 비움 그 충만>

한국 단색화를 대표하는 박서보 화백이 생활한 연희동 자택 부근에 박서보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최문규 연세대 교수가 설계했으며, 전시실 3개와 커뮤니티 공간, 야외 정원 등으로 구성된다. 8월 21일 개관과 동시에 마련한 전시 <박서보와 호영 도인: 비움 그 충만>에선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박서보와 베트남에서 태어나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호영 도인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지하 2층 SPACE 0에서 시작해 2층 SPACE 2를 거쳐 3층 SPACE 3으로 이어지는 전시는 두 작가의 서로 다른 조형 언어가 만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3층 공간 '큐브'에는 작가가 미술관이 생기면 겹겹다며 2023년 작고하기 전까지 붙들고 있던 백색 모범 작품 3점이 걸려 있다. 대중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다.

2027년1월3일까지 | 박서보미술관 전관 | 02.336.7927



©박서보미술관



먹고 쇼핑하는 서울을 넘어, 문화예술 수도로

오늘날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무엇을 소비할까. 가장 압도적인 경험은 미식(60.3%)이었고, 그 뒤를 쇼핑(42.9%)과 고궁·박물관 방문(38.4%)이 이었다. 반면 도심의 축제나 이벤트(18.6%), 공연 관람(16.9%) 같은 적극적인 문화예술 참여는 10명중 2명에 그쳤다.

도시의 기틀에 대한 평가는 훌륭하다. 치안 만족도는 75.4%에 달했고, 사통팔달의 교통(72.2%)과 매력적인 음식(71.5%)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여행의 영혼이라 할 관광 콘텐츠 만족도는 54.5% 수준에 머물렀다. 쾌적하게 먹고 안전하게 즐길 수는 있지만, 도시가 주는 감동의 깊이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뜻이다.

이 통계에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지금의 경험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를 향한 기대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 이러한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찾은 이들의 절반(46.3%)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모습으로 '문화·예술 관광도시'를 가리켰다. 2위를 차지한 생태·휴양 도시(16%)나 친환경 도시(16%)를 큰 격차로 따돌린, 압도적인 지지로 볼 수 있다.

세대별 응답 결과도 흥미롭다. 20대 이하 젊은 세대는 K-컬처를 비롯한 대중문화 소비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50대 이상 여성층에서는 깊이 있는 문화예술 체험과의 연관성이 유독 높게 나타났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열망이 특정 취향을 넘어 세대를 관통하는 서울 관광의 엔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사람들은 그저 '물건을 사고 맛있는 것을 먹는 안전한 여행지'로 서울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이미 세계 수준의 치안과 교통, 다채로운 미식 자원은 준비됐고, 한층 매력적인 문화예술 콘텐츠와 축제로 도시의 결을 채워야 한다. 발길 닿는 곳마다 감동과 영감이 샘솟는 도시. 그것이 지금 세계가 기대하고, 서울이 완성해야 할 가장 서울다운 미래가 아닐까.

이 내용은 서울관광재단에서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서울관광 실태조사(내국인)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보고서 전문과 더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st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ARTS +

예술가의 진심

전민철,

한국 발레가 기다려온
왕자의 탄생

김태희 무용평론가 | 사진 김윤식 | 사진 제공 에투알클래식



1

그와의 대화를 한 편으로 풀기에 앞서, 나는 한국 공연시장을 느닷없이 휘감고 있는 이 광풍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른바 ‘전민철 신드롬’. 7월과 8월, 오프 시즌에 기해 징검다리로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상트페테르부르크로부터 경기도 화성, 서울에 이르기까지 공연 일정이 많아도 너무 많은 그를 인터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티스트의 컨디션이 우선이나 인터뷰어 또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는 법. 공연 일정을 섬세하게 챙겨가며 공백마다 매니저먼트를 독촉한 끝에 몇 차례에 걸쳐 그의 이야기가 건네왔다. 극장 밖 관객의 성원에 들뜬 법도 하나 전민철의 온도는 차분했다. 22세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매체가 질문했겠으나 이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겠죠. 마린스키에서의 첫 시즌이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3일 마린스키 극장에 처음 출근하고 7월 17일 <라 바야데르>의 솔로로 주역 데뷔하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어요.

러시아에 도착해 첫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한 달 남짓 적응 기간을 거쳤어요. 데뷔 무대는 당연히 아쉬움이 남아요.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해서 힘들었죠. 함께하는 사람들도부터 주변 환경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기에, 한 번에 적응한다기보다 거듭할수록 나를 발전시키면서 증명해내겠다는 마음으로 매번 무대에 섰어요.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첫 시즌을 마치면서 ‘한국에서 잘 배웠구나’, ‘선생님들께서 정말 잘 가르쳐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요. 칭찬을 많이 들었고, ‘무대에서 보니 어떻게 마린스키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단번에 그 에너지를 느꼈다’는 이야기를 해준 분도 계셨네요.

마린스키 극장은 새 프로덕션을 내세우기보다는 시즌 내내 대표 레퍼토리를 반복해서 공연하는 방식을 택하죠. 극장의 운영 방식에 아쉬움은 없나요.

같은 작품을 계속해서 공연하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공연해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같은 작품이어도 파트너가, 제 컨디션이, 무대 상황이, 관객의 반응이 전부 다르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 작품을 여러 번 공연하는 것이 오히려 무용수로서는 좋은 경험이에요. 한 번 공연하고 끝나버리면 아쉬운 점은 생

만 하고 넘겨야 하는데, 마린스키에서는 다음 공연에서 바로 다르게 시도해볼 수 있거든요. 이곳의 클래식 발레 작품에는 오랫동안 고수해온 마린스키만의 방식과 디테일이 있어요. 반복해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경험을 내 안에 최대한 쌓아가는 중이에요.

세계 관객의 사랑을 받는 슈퍼스타이자 선배 김기민이 입단 과정에서부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죠. 실제 마린스키에서 만난 그는 어떤 예술가인가요.

(김)기민 형이 없었다면 마린스키 발레에 입단하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거예요. 공식 오디션이 없으니까요. 공연이 끝난 뒤 형이 해주는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작품을 준비하며 인물과 감정 표현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특정 감정이 왜 생겨나는지, 그 감정이 발현되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보라는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잘되지 않는 동작에 대해서는 운동 역학적으로 설명해주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죠.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해주는... 제 롤모델일 수밖에요.

안드리안 파데예프Andrian Fadeyev 마린스키 발레 예술감독은 당신을 높게 평가하면서 퍼스트 솔로리스트 임명은 과장이 아니라 비유하자면 “선불”일 뿐이라고 언급했어요. 코르드발레를 거치지 않고 주역 자리로 진입한 만큼, 언제나 부담도 있을 듯한데요.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오히려 그런 시선은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새로운 환경에서도 나를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은 크죠.

러시아 생활은 잘 맞나요.

한국에서와 달리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생각이 가득하고, 그러다보면 계속 깊어지게 돼요. 발레단에서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리마저도 아름답거든요. 발레를 사랑하는 도시의 풍경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춤으로까지 이어지죠. 무대에서 바라보는 마린스키 극장의 객석은 한국의 어느 극장보다도 화려한데, 입단 전 국내에서 여러 극장을 다니며 다양한 무대와 객석, 플로어를 경험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2

영국의 어느 탄광촌을 배경으로 시위에 열성인 아버지와 형, 아픈 조부모, 그러나 평범하게 살기보다 발레를 하고 싶은 소년의 성장기를





다른 영화 〈빌리 엘리어트 Billy Elliot〉, 2001년 개봉한 후 뮤지컬로 만들어져 2010년 비영여권 최초로 한국에서 막을 올리기도 한 이 작품은 전민철의 유년기 에피소드와 꼭 겹쳐진다. 발레를 시작한 지 두 해가 지난 2016년, 이 뮤지컬의 주인공을 키우는 ‘빌리 스쿨’에 들어간 것. 다만 만8세부터 12세 사이, 키 150센티미터 이하라는 조건을 넘어서 성장 속도 때문에 결국 빌리가 되지 못한 전민철의 사연은 2017년 지상파 방송을 타고 전국민에게 알려졌다. “아빠 눈에는 내 행복한 모습은 안 보여?” 눈물을 뚝뚝 흘리며 또랑또랑 울분을 토하는 모습이 많은 어른들을 자극하고 말았다.

빌리 스쿨을 계기로 실패를 경험했지만, 덕분에 선화예술학교로 진학을 결심하며 본격적으로 예술에 발을 들이게 됐다. 남보다 조금 늦었지만, 또 선화예술고등학교는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예술학교에 입학만 하면 일추 적응할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 또 저와 친구들의 실력은 너무 차이가 났죠. 연습실을 촬영한 영상을 보는

지난 8월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에서 지그프리트 왕자로 무대에 선 전민철
©유니버설발레단

데 저 빼고 다들 너무 잘 돌고 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연습했어요. 거울 보고 따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한참 고민했죠. 그 과정에서 발레에 더 흥미를 느낀 것 같아요. 안 되던 동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성취감도 커졌고요.

스스로 승부욕이 있다고 했죠.

하고자 마음먹은 건 꼭 해내야 하는 성격이에요. 끈기와 그에 따르는 성취감이 계속 발레를 하게 하는 동력이 되거든요. 발레를 하면 행복해요. 그걸 느끼기 시작한 뒤부터 실력이 빠르게 성장한 것 같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 진학했고, 이듬해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 Youth America Grand Prix, YAGP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해외로 나가야겠다고 마음먹는 계기가 됐을까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해외 무용수들의 공연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외국에서 무대를 직접 경험하면서 내가 알지 못

하는 세계가 굉장히 넓다는 걸 깨달았죠. 클래식 발레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마린스키 발레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오랫동안 공연되고 있는, 클래식 발레의 본산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온 전통이 남아 있는 발레단이고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환경에서 부딪혀보고 싶었어요.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죠.

반가운 입단 소식이 들려오고도 출국하기까지 짧은 세에 정말 많은 공연에 출연했어요. 학교 공연만 아니라 유니버설발레단 〈라 바야데르〉²⁰²⁴와 〈지젤〉²⁰²⁵ 주역으로 전막 무대에 올랐죠. 학교를 떠나 홀로서기를 앞두고 내 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을 거고요. 저는 춤에서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품의 콘텍스트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편이에요. 테크닉 면에서 어떤 동작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이 동작을 하는지 이해하고 춤추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재밌어요. 특히 마임과 감정 표현, 파트너십이 중요한 작품에선 그 점이 더 절실하죠. 지금은 제가 잘하는 것을 정하

기보다 여러 역할을 경험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가고 싶어요.

3

발레는 클래식 음악과 닮았다. 예술가 한 사람이 한 국가의 예술적 수준을 대변하기도, 특정 예술단체 하나가 전체의 위상을 높이기도 한다. 콩쿠르가 곧 등용문이 되고, 스타 한 사람이 공연시장을 들쭉이게 한다. 뛰어난 무용수가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한국 발레의 위상은 빠르게 드높아졌다. 우리 무용수의 브누아 드 라 당스 Benois de la danse 수상이나 해외 단체 진출을 비롯해 반가운 소식은 2000년대 들어 더 자주 들려왔다. 특히 2011년 김기민의 마린스키 발레, 박세은의 파리 오페라 발레 입단 소식은 발레라는 예술에 내재하던 순혈주의를 깨뜨리는 기점이었다. 2012년 들어서는 서회가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수석무용수 자리에 올랐고, 김기민은 2015년, 박세은은 2021년 각각 수석무용수와 에투알이 됐다.

그러니 사실 전민철의 마린스키 발레 입단은 그리 놀라운 소식은 아니다. 김기민 역시 19세에 마린스키 발레 소속이 됐으니 말이다. 하지만 한국 발레리노의 계보를 놓고 본다면, 그의 등장은 신성의 발견에 비유할 만하다. 전민철 이전 한국 발레리노의 이미지는 대체로 높고 긴 체공을 자랑하는 점프와 폭발적인 턴 테크닉으로 대표됐다. 더 높이 뛰고 빠르게 많이 도는 것이 곧 실력이었고, 관객의 호응을 끌어내는 핵심이었다. 전민철의 춤은 다르다. 말하자면 그는 ‘확신의 왕자님 상책’이다. 길고 가느다란 선, 작은 얼굴과 사슴 같은 큰 눈망울, 섬세한 손짓… 공주님의 미모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왕자님의 등장이랄까. 그 역시 자신의 몸이 그려내는 이미지를 잘 안다. 지금 그가 집중하는 것 역시, 테크닉은 기본으로 두고 그 위로 연기와 표현을 쌓아 드라마로 소구하는 데 있다.

좋아하는 작품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자주 언급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춤만 아니라 프로코피예프의 음악까지도 정말 좋아했어요. 춤을 잘 추는 것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작품이잖아요. 지난 시즌 로미오를 준비하면서 특히 감정 표현의 스펙트럼을 많이 고민했어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건 기본이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지’, ‘지금의 이 기쁨은 왜,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내면에서부터 생각해서 실제 무대에서 표현해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 〈로미오와 줄리엣〉무대에 설 때는 좀 더 알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그 깨달음을 시도하는 중이에요.



당신이 그려내는 로미오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젊고 순수한 청년이죠. 친구들과 장난치는 걸 즐기는 평범한 소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제껏 몰랐던 감정을 알게 돼요. 다채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어른이 되고요. 저는 그 감정의 파고를 온몸으로 경험함으로써 드러나는 변화가 작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로미오를 만들고 싶어요. 무대에 처음 등장해 줄리엣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지고, 친구를 잃는 슬픔을 느끼며, 죽음으로까지 이르는 과정에서의 섬세한 감정 변화가 춤 안에 자연스럽게 보이도록요.

마린스키 발레 다음 시즌 개막작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김기민&레네타 샤키로바Renata Shakirova 커플의 오프닝 무대에 이어, 9월 11일 마리아 호레바Maria Khoreva와 호흡을 맞추네요.

마리아는 영리한 무용수예요. 자기 역할에 대해 깊게 탐구하고, 리허설은 구체적이죠. 테크닉이 뛰어난 무용수이기도 하면서 같이 춤출 때는 상대 무용수가 무엇을 생각하고 의도하는지 빠르게 이해해요. 파트너링을 위해 서로의 움직임 타이밍과 호흡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편안한 파트너예요. 함께 무대에 서면서 배우는 점도 많고요.

지난여름 <인어공주>부터 갈라까지 여러 공연에 출연했지만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은 건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예요. 클래식 발레의 정수이자 마린스키 발레에서 지난 12월 데뷔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왕자’니까요.

마린스키 극장 객석에서 <백조의 호수>를 보며 정말 잘 만들어진 발레라고 생각했어요.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가 깃들여 있고, 무용수가 움직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표현한다면 객석의 관객과 곧바로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이죠. 저는 지그프리트 왕자가 인생의 변화를 앞두고 있으나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데트를 향한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호기심이죠. 이 존재를 도와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랄까요. 이후 호숫가에서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요. 지그프리트 왕자를 준비할 때는 무엇보다 마음에 신경 썼어요. 오데트/오딜과의 호흡, 그리고 어떤 동작이 이 이야기에 가장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고민했구요.

춤이 예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죠? 움직임에서 드러나는 길고 유려한 선이야말로 장점이잖아요. 일 년 만에 무대를 보니 아름다운 춤선

은 여전하면서 힘이 좋아졌더군요.

특별히 근력 운동을 많이 한 건 아닌데 공연과 리허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힘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연습할 때와 실제로 극장에서 한 시즌을 보내는 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공연이 끝나자마자 다음 작품을 준비해야 할 때도 있고, 계속 파트너십을 맞춰야 하니 순간적으로 힘을 쓰기보다 길게 컨디션을 유지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고 있어요. 운동량을 늘리기보다는 몸이 피로를 느낄 때 제대로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요.

알브레히트·타호르·솔로르·장 드 브리엔·테지레 왕자·호두까기 왕자… 첫 시즌에 무려 여덟 작품을 소화했어요.

아직 제가 해 보지 못한 역할이 아주 많아요. 춤만 아니라 인물의 감정과 관계를 깊이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을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요즘은 제가 무대에서 어떻게 움직일 때 이야기를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목표는 표현력을 키우는 거예요. 연기자 같은 발레리노가 되고 싶어요. 훗날 나이가 들고 경험이 더 많이 쌓였을 때 드라마가 강한 작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 기대돼요.

과거 인터뷰에서 ‘인생에 있어 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전민철의 꿈은 무엇인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린스키 발레에 입단하는 것이 꿈이었죠. 그것을 이루고나니 주변에서 꿈을 이루는 것보다 왜 그러한 꿈을 갖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어릴 때부터 선망하던 꿈에 실제로 다가갔을 때, 오히려 그 현재에 실망하거나 회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 꿈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가는 중입니다.

지난여름, 불멸더위만큼이나 우리 무용계는 뜨거웠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무용수들의 고국 공연이 연일 이어졌고, 하루가 멀다 하고 화려한 라인업의 무대가 막을 올렸다. 그의 이름이 붙은 공연은 예매가 시작되기 무섭게 티켓이 팔려나갔고, 수많은 매체가 전민철의 이야기와 춤을 찬미했다. 더 많은 조명이 한곳을 비출수록 주변부는 어두워지기 마련이다. 그가 혜성에 그치지 않도록, 별빛이 수놓아진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무한한 하늘에는 저마다의 빛을 가진 수많은 반짝임이 존재하므로, 또한 그 안에서 혜성의 아름다운 궤적이 더욱 빛날 것이므로.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

최정상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후지노 도모아키는 1983년 조현병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누나를 병원 대신 부모가 집 안에서 돌보며 25년간 격리한 가족의 시간을 촬영했다. 누나 마사코는 의대에 진학한 수재였고, 의사이자 연구자인 부모는 딸의 치료 기록이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직접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질병을 드러내는 순간 딸의 미래와 가족의 삶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그 선택의 배경에 놓여 있었다.

어느 날부터 현관문에는 쇠사슬과 자물쇠가 채워졌다. 처음에는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호는 통제가 되고, 통제는 감금이 됐다. 돌봄을 위해 닫은 집은 어느 순간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 됐고, 가족을 지키려던 선택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삶까지 바깥과 차단했다. 영화는 이 문을 단순한 사실의 기록으로 지나치지 않는다. 쇠사슬과 자물쇠는 그 시간을 압축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 집 안과 집 밖, 보호와 통제, 가족과 사회 사이의 경계가 물리적인 문 하나에 겹쳐지는 것이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부조리는 거대한 사건이나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에서 비롯하지 않는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결정이 반복되고 축적되면서, 어느 순간 다른 길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다. 가족은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그 해결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지속시켰다. 치료를 피하려던 보호는 고립으로 이어졌고, 정상적인 삶을 보존하려던 노력은 결국 한 사람을 그 바깥으로 밀어냈다.

시간이 지나고, 누나의 입원 치료를 반대한 어머니가 치매를 앓게 되면서 마사코는 비로소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적절한 약물을 찾은 뒤에는 3개월 만에 퇴원한다. 그 뒤로 마사코는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며, 불꽃놀이를 보고, 외출하는 가족을 배웅한다. 그 평범한 하루가 가능해지기까지 25년이 필요했다. 치료와 돌봄의 여건이 달랐다면 그 삶은 감금과 고립이 아닌 다른 경로를 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시간을 가족의 잘못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가족은 누나의 고통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도록 내몰린 사람들이기도 했다.

당시 적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는 돌봄보다 격리와 수용에 가까웠고, 열악한 환경은 입원 경험 자체를 또 다른 상처로 남기기도 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 건강의 위기를 감당하고 중재할 기반도 부족했다. 정신질환자를 마주했을 때 치료와 돌봄보다 경찰을 부르는 사회방위적 대응이 먼저 호출되는 현실 역시 가족의 선택지를 좁혔다. 여기에 사회적 낙인과 배제가 겹쳤다. 치료의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치료와 돌봄, 지역사회와 가족을 연결할 사회적 장치 자체가 빈약했다. 결국 가족에게 남은 선택지는 ‘치료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개인적 결단으로 축소됐고, 그 결정의 무게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한편, 영화〈어떻게 해야 했을까?〉²⁰²³에서 정작 25년의 시간을 살아낸 마사코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가족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충분히 들을 수 없다. 가족의 선택을 설명하고 사회의 책임을 묻는 일만으로는 정작 그 시간의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의 경험에 가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마사코의 침묵은 단순한 정보의 결핍이 아니라, 이 다큐멘터리가 감당해야 할 형식적이면서도 윤리적인 공백이다. 카메라는 그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의 내면을 대신 말할 수는 없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끝까지 의식해야 할 것은 마사코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인지도 모른다.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고, 침묵에 함부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카메라는 모든 것을 설명한다기보다, 끝내 알 수 없는 것을 남겨두는 카메라에 가깝다.

무엇보다 이 카메라는 가족 바깥에 서 있지 않다. 감독은 관찰자인 동시에 이 시간의 일부인 가족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카메라가 묻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는 타인의 잘못을 심판하는 질문이 아니라 감독 자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에게 되돌아오는 질문이 된다. 바로 여기서 제목의 의미가 달라진다. 처음에는 지나간 선택에 대한 가족의 후회와 반성처럼 들리지만, 영화를 따라가다보면 그것은 오랫동안 일상의 무게와 두려움, 죄책감과 체념 속에 묻혀 있던 물음이라는 걸 알게 된다. 카메라는 그 질문에 해설을 덧붙이거나 하나의 정답으로 봉합하지 않고, 장면과 시간의 배열을 통해 다시 우리 앞에 놓는다.

질문의 방향은 ‘누가 잘못했는가’에서 ‘무엇이 그런 선택을 가능하게 했는가’로, ‘그때 어떻게 해야 했는가’에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옮겨간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과거의 정답이 아니라, 말해지지 않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다. 그리고 언젠가 같은 질문이 다시 누군가의 삶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2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C CULTURE + 예술이 흐르는 길목에서				
축제를 만든다는 것은 류재준 작곡가	예술을 주제로 한 축제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 인류의 축제는 대부분 풍요로운 산출물과 계절의 변화, 종교의식, 결혼, 추수와 같은 특별한 사건과 시간을 공동체가 함께 기념하는 데서 시작됐다. 규모가 커지고 형식이 정교해졌을 뿐, 축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공동체의 삶과 신앙, 생존이 있었다. 음악과 춤·연극은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예술 자체가 축제의 목적인 적은 거의 없었다. 고대 축제의 상징인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아키투 Akitu 역시 마찬가지다. 예술은 제의와 의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축제의 주인공은 아니었다. 예술이 축제의 전면으로 등장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가 예술 축제의 기원을 인본주의의 발현과 연결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르네상스 시대의 축제가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예술 축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예술은 더 이상 의례를 장식하는 부속물이 아니라 축제의 수준과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축제의 기능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사람들의 오락과 화합의 장이던 축제는 권력과 도시의 위상을 드러내는 무대로 변모했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음악과 미술, 건축과 연극을 통해 자신들의 부와 교양, 정치적 권위를 과시했고, 다른 도시국가 역시 화려한 축제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축제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정교함과 화려함을 보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힘과 번영을 체험했고,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장치가 됐다. 예술 작품은 더 이상 축제를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그 자체의 완성도와 경쟁력을 통해 축제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리했다. 하지만 예술이 축제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축제는 또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축제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공동체가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를 표현하는 상징체계가 됐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메디치 가문의 권위를, 바로크 시대에는 절대왕정의 질서를, 근대 이후에는 국민국가의 이상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축제가 활용됐다. 오늘날에는 여기에 도시의 브랜드와 국가의 이미지, 기업의 가치까지 더해졌다. 축제는 문화 외교와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수단이 됐지만, 그만큼 프로파간다와도 맞닿아 있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특정한 권력이나 이념을 미화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얇은 경계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의 축제 기획자는 가장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오늘날의 축제는 더 이상 좋은 공연을 나열하고 그럴듯한 주제를 붙인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어떤 작품을 선택할 것인지,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무엇을 중심에 놓고 무엇을 주변으로 둘 것인지는 모두 하나의 문화적 메시지가 된다. 전문가들은 축제를 통해		예술의 방향성을 읽고, 사회학자들은 프로그램의 구성과 시의성을 분석하여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해석한다. 예술은 국경을 초월하는 언어라고 말하지만, 예술 축제는 언제나 특정한 도시와 국가 안에서 기획된다. 바로 이 역설 때문에 현대의 축제는 어느 시대보다 복잡해졌다. 특히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환경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더욱 민감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예술가와 단체를 초청하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의미를 갖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 클래식 음악 역시 유럽 중심의 레퍼토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와 무관하게 중요한 문화권이 배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뛰어난 음악가와 작곡가들은 여전히 국제 무대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다. 모두에게 같은 기회와 정성을 기울이고 싶지만, 현실의 예산과 관객의 관심은 언제나 한정돼 있다. 대중의 관심이 적은 예술과 문화에 공공의 자원을 어디까지 투입해야 하는지는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다. 이러한 고민은 문화 정책 전반에서도 반복된다. 한식의 세계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오랜 시간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한국의 문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한식은 자연스럽게 세계인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초기의 투자와 시행착오는 실패였을까, 아니면 뒤늦게 꽃을 피우기 위한 토양을 만드는 과정이었을까. 문화는 일반 산업과 달리 투자와 성과가 같은 시간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나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순수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축제라면 시장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지원을 받는 예술 축제는 시장과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다. 당장의 인기와 소비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예술과 문화, 미래의 예술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의 문화적 시야를 넓혀가는 것, 그것이 공공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다. 시장은 현재의 취향을 반영하지만, 공공은 미래의 가능성을 준비한다. 만약 공공이 시장과 같은 선택만 반복한다면 공공 지원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이다. 결국 축제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오지 않은 시대를 미리 보여주는 창이어야 한다. 축제를 기획한다는 것은 공연을 배열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회가 어떤 문화를 꿈꾸는지를 설계하는 일이다. 좋은 축제는 관객을 만족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공동체가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다음 세대가 어떤 문화적 세계를 살아가게 될지 질문하게 만든다. 그것이 공공의 지원을 받는 예술 축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며, 오늘날 축제 기획자에게 주어진 가장 어렵고도 가장 가치 있는 책무일 것이다.	
18				19

S SEOUL + 문화의 창				
	무덤지만 일상은 계속 흘러간다. 그저 속도가 다소 빨라지거나 다소 느려질 뿐이다. 전주 경기전 북동쪽 구석에서 여드레간 가야금 수업을 받고 이제 막 돌아온 참이다. 보통 수업 사이사이에는 스승이신 지성자 명인과 경기전 담벼락을 따라 거닐었다. 급할 것이 없던 어느 날 아침, 발걸음이 마침 경기전 입구에 닿은 찰나에 문은 지키는 이도 없이 활짝 열려 있었다. 슬며시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양옆으로 펼쳐진 대나무숲 터널을 지나 수백 살이 된 육중한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모기들이 설칠 정도로 날이 시원했기에 한 방 물려 줄 정도로만 머물렀다. 돌아 나오는 길에는 입구에서 관리인 한 분이 우릴 불러 세웠다. 나는 인간문화재이신 스승께 “동네 할머니인 척”하시라 일렀다. 나 또한 한국어를 못하는 행세를 했다. 다음날 저녁에도 스승과 함께 경기전 담벼락 길을 걸었다. 뽕죽한 솔잎이 백일간 피는 붉은 꽃인 백일홍과 함께 서쪽 담장 너머로 빼죽 나와 있었다. 백일홍은 매미 소리와 작열하는 더위가 지속되는 여름 나절에 가을의 도래를 알리는 전령이다. 내가 나고 자란 미국 알래스카에도 그와 비슷한 ‘분홍바늘꽃’^{Fireweed}이라는 꽃이 있다. 줄기를 따라 분홍색 꽃잎이 서서히 피어나면 어느새 가을은 여름으로부터 천천히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		실을 알고도 우리 은하의 항성 4억 개 중 하나인 태양을 공전 중인 인류는 본인이 별이요, 그네들이 있는 곳의 ‘물이 좋다’고 믿고 있다. 전주에서 ‘은하’를 찾는 게 어려운 정도라면, 그보다 환한 서울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 서울의 밤하늘에서 은하수를 찾아본 적이 있다. 이웃 동네 근처의 자하문^{紫霞門}을 따라 이어지는 성벽에서 시도했는데, ‘자하문’은 새벽녘, 황혼 녘 안개에서 그 이름을 따와 보랏빛 안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한때는 자연한 안개였지만 오늘날 미세먼지와 광공해로 인해 보랏빛이라기보다는 노란빛 안개에 가깝지만 말이다. 언덕 바로 밑에는 윤동주문학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 시 ‘별 헤는 밤’에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라는 구절을 쓴 1941년, 당시 시인 윤동주는 그 언덕 근처에 살았다. 그는 스물일곱 나이에 일본의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문학관 제2전시실 ‘열린 우물’은 폐기된 물탱크를 개조해 만들었는데,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공허의 바닥에 가만히 서면 사각형 모양의 하늘 한 조각을 바라볼 수 있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구로 보내오는 모든 프레임의 하늘 역시 작은 사각형 조각이다. 이 조각들을 충분히 모으면 하늘 크기의 커다란 조각보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조각보란 한국 여성들이 작은 자투리 천의 끝단을 바느질로 이어 께맨 보자기를 말한다. 음력 7월 7일 칠석에는 신들이 입을 옷을 짜는 직녀가 까치와 까마귀들이 지어준 오작교를 통해 밤하늘의 은하수를 건너 목동 견우를 만나러 간다는 전설이 전해 오는데, 조각보를 만들던 소녀들은 이날 하늘을 올려다보며 직녀에게 손재주가 좋아지게 해달라 기도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하늘 조각과 천 조각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으리라. 문학관 ‘열린 우물’의 하늘 지근거리에는 부암동의 환기미술관이 있다. 김환기 화백은 말년을 미국 뉴욕에서 보내던 중, 태양을 이어줄 까마귀가 충분치 않다 여기고 대신 캔버스를 파란 점으로 채웠다. 이 작품에는 그의 지기 김광섭의 시 마지막 구절을 빌려와 이름을 붙였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환기의 작품이 별로 가득한 밤하늘을 묘사했다면, 김광섭의 시는 이렇게 시작해 이어진다.	
하늘 한 조각 조세린 배재대학교 교수	걷다가 서문 근처에 있는 화장암 벤치에 앉았는데, 어둑한 무렵이었음에도 돌은 한증막 안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열기를 내뿜었다. 우리는 잠시 엉덩이를 붙이고 있다가 CCTV가 잘 보이는 명당자리 벤치 위에 나란히 누워 감감해지는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흘러가며 하나의 광원을 가렸다 보였다 했다. 스승께서 저것은 별이나 물으시기에, 행성이나 인공 위성 등 다른 가능성을 점쳐보았으나 한국어로는 알지 못하는 단어라서 그냥 별이라고 답했다. 다만 육안 상으로 보이는 밝은 별은 단 하나뿐이었다. “은하수^{銀河水}가 보고 싶네요.”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영어에서는 은하수를 ‘우유가 흐르는 길’이란 뜻의 ‘밀키 웨이’^{Milky way}라고 한다. 고향 알래스카에서는 평소 밤하늘에서도 은하수를 볼 수 있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서 첫 번째 사진이 오기 시작한 지 4년이 지났고, 덕분에 이제 우리는 우주에 은하가 2조 개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고향집 위를 선명하게 수놓던 밝은 은하수를 오늘날 한국의 밤하늘에서는 더는 볼 수 없다. 하늘은 외려 희부예졌다. 이 모든 사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 화가는 마음속에 품은 천우를 생각하며 점을 하나씩 그려 넣고는, 점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기억을 새겨 넣었다.	
20			21	

S SEOUL + 문화의 창				
	내게 있어 짐이란 스승과 함께 보낸 시공간에 속한 읍포다. 대개는 산조의 흘러가는 자락이니 웹 우주 망원경 속 은하를 더 닮았을지도 모른다. 그 질량으로 인해 저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이 호를 그리며 희미하게 흩어지도록 왜곡시키는 가까운 은하같이 말이다. 중중 영어로 ‘흩은 가락Scattered melodies’이라 번역되는 산조는 19세기 말 한반도 남쪽의 전남 영암에서 김창조 명인이 지어낸 여러 장단으로 짜인 음악 형식이다. 그 후, 남쪽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산조는 북진해 수도에 다다르고, 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학 강의실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9월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30개국 갤러리가 함께하는 ‘프리즈 서울,’ ‘키아프 서울’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의 갤러리들이 북진한다. 행사가 개최되는 동안은 밤하늘이 소거된, 반짝이는 예술적 장관으로 일렁이게 될 서울의 ’물이 좋아질’ 예정이다. 우리는 별의 먼지에서 온 존재일지는 몰라도, 별은 아니다. 그 주에 나는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이 열리는 영암으로 돌아갈 것이다. ‘은하수’는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작교 공사를 끝낸 까치들은 소나무에서 쉬고 있겠지. 하지만 월출산月出山 위로 떠오르는 달을 보기엔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glish), their blossoms heralding fall even while the days still burn hot and scream with cicadas. We have something similar in Alaska—fireweed. As its pink blossoms creep up the stalk, fall slowly takes over from summer. Our teacher and I sat down near the west gate on a bench carved from a giant granite boulder. Even though it was dusk, the seat still radiated heat like a kiln sauna. After sitting a while, we lay down across the stone in full view of the security cameras, head to head, looking up at the darkening sky. The clouds floated by, covering and uncovering a single point of light. Our teacher asked if I thought it was a star. I considered other possibilities—a planet? satellite? Those words are not in my Korean vocabulary, so I went with star. But only one shone brightly enough to see. “I miss seeing the <i>silver river water</i>,” I said aloud in Korean. The “Milky Way,” as we say in English, was a regular sight in the night sky where I grew up in Alaska. It has been four years since the first pictures came back from the James Webb Space Telescope, and we now know the universe holds as many as two trillion galaxies. And yet the sky over modern Korea is no longer the clean silver river water that still stretches so vividly above my childhood home. It has actually gone milky. Just as we learn all this, humans revolving around one of the 400 billion suns in the galaxy that is theirs have begun to believe that they themselves are stars, that their water, <i>muri johta</i>, is good. If it is hard to see the “Silver River” in Jeonju, it is impossible to find amid the bright lights of Seoul. I have tried. There is a wall near my neighborhood that you can pick up at Jahamun, the “purple mist” 紫霞 gate, named after the haze at dawn and dusk—once a natural mist, now fine dust particles and light pollution, less purple than yellow. Just down the hill is the Yun Dong-ju Literature House. Yun (尹東柱, 1917-1945) lived nearby in 1941, the year he wrote of counting stars “on this hillside where so much starlight has fallen.” He died at twenty-seven in a prison cell in Japan. The museum’s second chamber, the “Open Well,” was repurposed from an abandoned water tank. Visitors stand at the bottom of the concrete void and look up at one square of sky. Each frame the Webb Telescope sends back to earth is also a small square of sky. Piece together enough of these and you’d get something like a sky-sized <i>jogakbo</i>, the patchwork wrapping cloth Korean women sew of scraps joined edge-to-edge with exposed seams. On Chilseok (七夕), the August night the Weaving Maid crosses the bridge built by magpies and crows over the Silver River to her Ox Herder, girls sewing <i>jogakbo</i> once gazed up and prayed to her—Jiknyeo (織女), weaver to the gods—for a steadier hand. I’m not sure they ever thought of the sky and the cloth as separate things.	
A Scrap of Sky Jocelyn Clark Professor, Pai Chai University	It is hot, but life goes on. We just take our walks a little earlier, or a little later. I recently returned from eight days in Jeonju, where I study <i>gayageum</i> near the northeast corner of the Gyeonggijeon Shrine. My walks with our teacher Ji Seong-ja between lessons normally circle its walled complex, but one morning we were in no hurry and reached the entrance at that brief moment when the doors were open but unguarded. We slipped inside through the bamboo tunnels and sat down under centuries-old thick-trunked zelkovas. It was cool enough for mosquitoes to thrive, so we only lasted through the first bites. On our way out, we were stopped at the gate by an official. I let our teacher do her “just a local grandma” shtick, even though she is an Intangible Asset, while I pretended to be monolingual. The next evening, our walk took us around the outside of the wall. Long-needled pines overhang the western section, along with “100-day reds” (“crepe myrtle” in En-			
22				23

Near the Open Well’s inch of sky, in Buam-dong, lies the Whanki Museum. In the last years of his life in New York, knowing there were not enough corvids in the world to bridge the ocean, painter Kim Whanki (金煥基, 1913-1974) filled canvases with blue dots. The series title borrowed the closing line of a poem by his friend Kim Kwang-seop: “Where, and as what, shall we meet again?” While the paintings appear to depict star fields—the poem begins, “Among so many, a single star looks down at me,” and continues, “The deeper the night, the more the star disappears into the brightness...” —Kim spoke of the friends he had in mind as he set down and ringed the dots one at a time, embedding in each the memory of a name he did not write.

My own dots are musical notes attached to moments and spaces spent with a teacher. Mostly they are the moving ones of *sanjo*, so maybe they are more like the galaxies in Webb’s photographs, smeared into arcs by the mass in front *bending* light around it-self—the nearer thing making the farther thing visible by warping it.

Often translated in English as “scattered melodies,” the first *sanjo* was patched together by Kim Chang-jo from woven melodies down in Yeong-am, Jeolla,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n it went north, the way everything here goes north—to the capital and universities where it is taught in rooms with no mosquitoes.

In September, Korea’s galleries come north too, joining others from 30 countries at COEX for Frieze and Kiaf. The city will be as *muri johta* as it gets—the “good water,” meaning the “good crowd”—shimmering with spectacle and bright, sky-muting lights.

We may be made of stardust, but we are not stars.

I will be back in Yeong-am that week, at the Kim Chang-jo *Sanjo* Festival. The “Silver River” will likely remain hidden, and the magpies will be in the pines, done with their bridge. But viewing the moon coming up over Mt. Wolchul (月出山) should be good.

또 하나의 전시를 만드는 ‘해결사’

장래주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 출판기획팀장

박채림 [문화+서울] 에디터 | 사진 Studio Ke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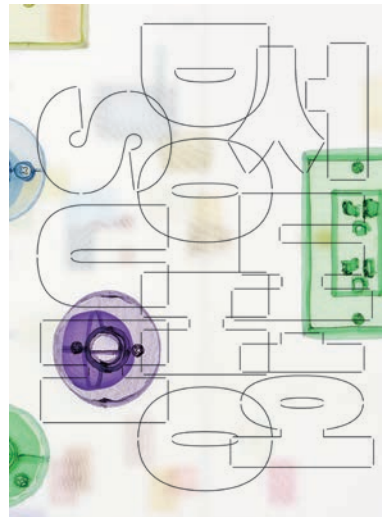
미술관 문화재단의 출판기획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출판기획팀은 쉽게 말해 ‘출판사’와 ‘서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곳입니다. 우선, 일반 출판사처럼 미술관에서 발행하는 전시 도록을 비롯한 각종 도서를 기획하고 편집·제작하며, 발간된 도서를 알리는 홍보 업무까지 담당합니다. 또 하나는 미술관 내 ‘미술책방’에 관한 일입니다. 매달 책방에서 소개할 우수한 도서를 발굴해 위탁 입고·관리하고, 책방 공간을 활용해 미술관 도서와 관련 서적을 좀 더 다채롭게 소개할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도록이 완성되기까지 출판기획팀은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도록을 ‘또 하나의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3차원 공간에 구현된 전시를 2차원의 책이라는 물성으로 다시 풀어내는 작업이죠. 물론 전시에서 보여주지 못한 자료나 이야기가 도록에 새롭게 담기기도 하므로 완전히 동일한 결과물은 아닙니다. 도록 제작 과정에서 출판기획팀은 담당 학예연구사의 러닝메이트이자 페이스메이커가 됩니다. 먼저 학예연구사에게 전시의 구성과 기획 의도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책의 판형과 디자인, 지류, 수록할 콘텐츠 등을 함께 고민합니다. 전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도록에서 소개하면 좋을 자료가 무

엇인지도 살펴보고요. 전시를 책이라는 물성으로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추천도 하고, 도록 구성이 정해지면 원고와 작품 이미지, 각종 자료를 취합하고 검토하면서 전체 제작 일정을 관리합니다. 실제로는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상황에 맞춰 계속 일정을 조정해야 하죠. 결국 한 권의 도록은 학예연구사와 작가, 필자, 디자이너, 인쇄·제작 업체까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결과물인 셈입니다.

여러 사람과 협업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이 책이 누구에게 가는가’를 생각합니다. 전시 담당자와 작가·연구자·디자이너부터 컬렉터와 애호가까지 다양한 사람이 책을 접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사이에서 좋은 매개자가 되려고 노력하고요.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모두가 조금씩 얻고 양보할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특히 책을 만드는 일은 한 사람의 작업이 다음 사람에게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기에 항상 ‘끝에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의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료와 일정을 잘 정리해 넘겨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매번 새로운 전시와 사람을 만나 ‘이번에는 어떤 책이 나올까’를 기대하는 과정 자체가 이 일의 큰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편집기획자로서 일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실 작업 과정은 꽤 고됩니다. 빠듯한 전시 개막 일정 안에 책을 발행하려면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혼자 남아 원고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새로운 책을 만들기 위해 학예연구사들과 모여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무척 설레고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원고를 검토하거나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책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더 찾아보곤 하는데요. 그렇게 호기심을 따라가다 무언가를 새롭게 배울 때면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자료와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탐정이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라면?

“모든 책에 저마다의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당장 떠오르는 건 가장 최근에 작업을 마친 서도호 작가의 개인전 도록입니다. 72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라 런던의 작가 스튜디오에서도 전시 개막에 맞춰 출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했는데, 결국 개막 일정에 맞춰 무사히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언제나 가장 힘든 책은 가장 최근에 끝낸 도록인 것 같아요. 아마 다음 도록을 마치고 나면 또 그 책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웃음)”
『서도호』 | 195 × 264mm, 720면 | 국립현대미술관 발행 | 2026년 8월

한때 도록은 미술 애호가만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독자층이 많이 넓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출판 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미술책 시장은 사뭇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미술 애호가나 컬렉터뿐 아니라 전시를 즐기는 관람객이 늘면서 미술 관련 책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지요. 전시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을 도록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려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미술책방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책도 전시 도록입니다.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는 어렵지만 도록은 다릅니다. 책을 사는 일이 작품을 소장하는 경험을 어느 정도 대신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팔리는 도록을 만들고 싶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요. 고가의 작품이 아니라도 책 한 권을 소장하면서 하나의 예술을 품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도록은 내용뿐 아니라 책 자체의 물성도 중요합니다. 전시의

방향과 기획 의도를 어떤 디자인과 물성으로 구현할지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온라인으로도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종이로 된 도서가 여전히 지닌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술계에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실험하며 전시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후 전시 관람객이 늘고, 도록 판매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소장하려는 욕구로 이어진 게 아닐까요? 온라인 매체로도 충분히 책을 읽고 전시를 감상할 수 있지만, 아직은 종이책을 통해 소통하려는 비중이 훨씬 큼니다. 책은 전시 작품과는 또 다른 물성을 지니고 있고, 그 물성이 ‘소장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읽는 것을 넘어 한 권의 책을 손에 쥐고 간직하는 경험 말

입니다. 미술책방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슬로건이 ‘컬렉션의 시작, 책을 소장하세요’였는데요. 책 자체도 하나의 컬렉션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여전히 유효한 듯합니다.

미술책방에서는 흥미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2019년 문을 연 미술책방은 미술계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책을 소개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했습니다. 독립출판사나 작가·기획자가 만든 좋은 책 가운데는 대형 서점에서 충분히 소개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개관과 함께 음악가·무용가·디자이너·작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인과 북토크나 낭독, 음감회, 워크숍 등을 진행했고, 디자인 스튜디오 신신과 함께한 ‘원도우 프로젝트’를 통해 책의 물성을 책방이라는 공간으로 확장해보기도 했지요. 책방의 시그니처가 된 알록달록한 창문은 그때의 작업으로 완성됐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출판사와 협업하며 미술책방의 역할을 더 넓혀가고 싶습니다.

출판기획팀과 미술책방이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일들이 궁금합니다. 소장품을 비롯해 미술관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책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미술을 연구자를 위한 전문적인 언어로만 다루기보다 일반 대중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책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이미 잘 알려진 작품뿐 아니라 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아직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작품을 발굴해 알리는 책도 만들고 싶고요. 미술책방 역시 다양한 출판사와 협업하며 미술책을 만드는 여러 주체가 독자와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팀장님께서 어떤 편집 기획자로 기억되고 싶나요? 책 한 권은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학예 연구사와 작가, 필자, 디자이너, 인쇄소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야 비로소 세상에 나오죠. 편집 기획자는 각자의 역할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걸림돌을 풀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함께 작업하는 이들이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좀 더 수월하게 자기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해결사’가 되고 싶습니다.



서울 서남권을 잇는 예술의 가능성

2026 금천 미술벨트

김혜나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지원팀

여름의 열기가 한층 누그러지고 선선한바람을 따라 걷고 싶어지는 9월, 서울 금천에 다채로운 미술 전시와 프로그램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금천 미술벨트가 진행된다. 금천구 전역을 살아 있는 미술 현장으로 펼쳐내는 이번 행사는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을 중심으로 금천구·금천문화재단·범일운수중점Tiger1·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아트센터예술의시간 등 6개 기관이 함께하며, 예술가 40여 명이 참여해 7개 전시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개막 행사를 비롯해 지역예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담론을 나누는 라운드테이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창작 워크숍 등 주요 프로그램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일부 연계 전시와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이어져 행사의 여운을 더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금천 미술벨트는 '공동의 지형, 이어진 시간'을 주제로 '지역'과 '연대'를 담는다. '공동의 지형'은 서울 서남권이라는 지역을 토대로 서로 다른 기관과 공간, 예술가가 각자의 고유한 성격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고, 교류를 통해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이어진 시간'은 작품과 예술가를 매개로 금천에 오랜 시간 축적해온 창작의 흔적과 유산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발견한 공동의 서사를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가는 데 주목한다.

2025년 야외 공간까지
활짝 개방한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풍경

예술가가 머물며 작업하는 시각예술 레지던시부터 새로운 예술 실험을 선보이는 미술관, 오래된 산업 공간을 활용한 전시실,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는 문화공간까지. 금천에는 저마다의 역할과 방식으로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만들어온 다양한 예술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렇게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들 공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금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예술의 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예술가의 작업실 문이 열리는 날

이번 금천 미술벨트의 중심에는 예술가의 창작 현장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가 자리한다.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가가 일정 기간 머물며 작품을 연구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각예술 전문 레지던사인 금천예술공장은 회화와 조각·설치·영상·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품고 있다. 평소에는 예술가의 창작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지만, 일 년에 한 번 오픈스튜디오 기간에는 작업실 문을 활짝 열고 시민을 맞이한다.

열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오는 '에코톤Ecotone: 겹치는 파동, 확장하는 영역'을 주제로 17기 입주작가의 창작 과정과 예술적 실험을 소개한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어온 작업들이 다른 시선과 만나는 순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작업실을 넘어 더 넓은 예술 영역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이번 오픈스튜디오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관람객은 완성된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과 과정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더불어 16명 작가를 직접 만나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오픈스튜디오만의 특별한 경험이다.



올해 오픈스튜디오에는 입주작가의 작업실 공개와 신작 쇼케이스를 비롯해 기획전시·퍼포먼스·시민 참여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금천예술공장 곳곳을 둘러보면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던 현대미술을 작가의 작업과 이야기,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 한층 가까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개막 당시 선보인
'예술가의 방'과 개막 퍼포먼스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주요 프로그램

예술가의 방

9월 17일 오후 5시 30분~8시, 18·19일 오후 1~7시

개막행사 퍼포먼스 (이수지·한수지·고요손 외)

9월 17일 오후 5시

기획전시 《포레스트 플로어 "그 말을 들으니 나는..."》

9월 17일~10월 8일 *일요일·공휴일 휴관

기획전시 연계 퍼포먼스 《시시포스 바리케이드》 (이민재)

9월 18일 오후 2~4시

금천아카이브 (신정균·송민규)

9월 17일 오후 4~8시, 18·19일 오후 1~7시 *일부 예약 필수

창작워크숍 (송석우·송민규)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정오 *사전 예약 필수

도슨트 프로그램 (기획 박관우)

9월 18·19일 오후 4~5시 20분 *사전 예약 필수

입주작가 자유제안 설치 프로젝트 (박예나·박성준)

9월 17일 오후 4~8시, 18·19일 오후 1~7시

* 금천예술공장 17기 입주작가

고요손 김은실 박관우 박성준 박소라 박예나 손수민

송민규 송석우 신정균 우민정 유해나 이민재 이수지

최은빈 한수지

미술관 밖,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

금천예술공장을 나서면 익숙한 거리와 일상에서도 예술을 마주할 수 있다. '화장실'이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만나게 될 신미경의 〈Toilet Project: 익명의 손들, 유물이 된 일상〉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순간을 하나의 예술적 경험으로 바꿔놓는다. 수많은 사람의 손에 닿아 사용되고 조금씩 닳아가는 작품의 변화 자체가 작업의 일부가 되며, 비누 조각 위에는 금천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흔적은 작품에 차곡차곡 쌓인다. 금천예술공장과 아트센터예술의시간이 공동 기획한



이번 프로젝트는 작가가 비누로 제작한 조각 작품을 공공 시설인 독산역과 예술공간인 아트센터예술의시간과 금천뮤지컬센터, 지역 제조업체의 화장실에 약 1년간 설치할 예정이다.

독산역에서 금천뮤지컬센터까지 거리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로 잇는 거리>도 이어진다. 서성협은 유치원 옆 작은 공개 공지 다람쥐공원에 바람 따라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벤티레이터 주두를 올린 기념비>를 설치하고, 송민규는 독산동에서 수집한 풍경을 자신만의 기호와 규칙으로 번역한 <독산 21×31>을 보도 펜스 위에 펼쳐놓는다. 신민은 대동몰드 공장과 진도아파트 1차 담벼락 곳곳에 작은 인물들을 배치한 <틈새의 이름들>과 <굴목길의 친구>를 설치해 매일 이 거리를 오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한 카페 외부에는 유화수가 본래의 기능을 마친 물질들이 새로운 역할을 기다리며 머무는 시간을 다루는 작품 <Injury Time>이 들어선다. 이렇듯 작품은 미술관의 벽을 벗어나 공원과 담벼락, 보행로와 카페에 자리하며 익숙했던 동네 풍경에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낸다.

금천뮤지컬센터에서는 '지역'에 축적된 시간과 기억을 영상으로 만나는 '금천 스크리닝'이 열린다. 2016년부터 2024년 사이 금천예술공장에 머물며 지역을 기록한 기타가와 다카요시·권혜원·차혜림·장보윤의 작품을 비롯해, 금천문화재단의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작업을 이어온 윤주희·유장우·최영의 신작을 소개한다.

여기에 범일운수종점Tiger1의 <종점에 모인 좌표들 Waypoints Gathered at the Terminal>과 연계한 김재민이·문서진·정정호·정혜정, 그리고 컨템포컬의 영상이 더해진다. 독산동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삶에서부터 사라진 구로의 기억, 산업과 노동의 풍경, 나아가 호암산의 믿음과 바다의 기억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을 따라가며 '지역'이라는 장소가 예술가의 시선을 거쳐 어떻게 기록되고 다시 해석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독산역부터 이어지는 이 일상의 거리를 찬찬히 거니는 동안, 익숙한 풍경은 작품이 되고 오래된 기억은 새로운 이야기로 되살아나며, 이 도시를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한, 하나의 예술 지도

일상의 거리로 확장된 예술 흐름은 금천 곳곳의 전시 공간과 문화시설로 이어진다. 금천예술공장바로 옆에 위치한 아트센터예술의시간은 금천 미술벨트의 출발을 알리는 연계 기획전 <뉴홈Another New Hope>을 연다. 금천예술공장 1~5기의 입주작가 백현주·여다함·이창훈·임흥순·정정주·차재민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의 풍경과 개인의 삶을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본다. <뉴홈>은 7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어져 금천 미술벨트의 마지막 날까지 관람객을 만난다. 하나의 지역이 지나온 시간을 작품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풍경을 새롭게 읽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 서남권 최초의 공립 미술관이자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인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에서는 두 개의 전시가 관람객을 기다린다. 플레이 라운지 <어쩌면 우리에게 더 멋진 일이 있을지도 몰라>는 금천예술공장 14기 입주작가 이우성이 1,969장의 파도 드로잉을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 동명의 작품을 준비했고, 17일부터 19일까지는 드로잉 워크숍이 함께 진행된다. 또 다른 전시 미디어 작가전 <김희천: 두더지들>은 게임과 영상·사진 등을 통해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세계와 자신을 어떻게 감각하는지 질문한다.

금천문화재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진 예술인부터 경력 예술인까지 창작 단계에 맞춰 지원하고, 예술가들이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금천 미술벨트는 이러한 지역 예술인의 활동이 금천 예술공장 입주작가와 교류로 확장되며, 서로 다른 경력과 작업 세계가 만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다. 금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만천명월예술인 ㅈ는 지역에

서 활동하는 신진 예술인 이세렌·방은비·박도희의 전시를 연다. 서로 다른 창작 방식과 예술적 탐구를 한자리에 서 만나는 전시로, 세 작가는 지난 1년간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고요순·송민규·송석우와의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금나래갤러리에는 지역 미술인의 현재를 만날 수 있는 제25회 금천미술협회 정기전도 함께 열린다. 생활의 동선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겹치는 전시 공간 범일운수종점Tiger1은 <종점에 모인 좌표들>을 선보인다.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였던 김재민이를 비롯해 문서진·윤주희·정정호·정혜정이 금천과 안동·선감도·가파도 등 서로 다른 장소에서 축적한 리서치와 풍경, 기억을 스크리닝과 렉처 퍼포먼스로 풀어낸다. 여러 지역에서 출발한 작업이 하나의 '종점'에 모여며 새로운 연결의 좌표를 그

← 기타가와 다카요시, <Seek oneday Grandmother!>, 2016, 6분 20초

↳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플레이 라운지 <어쩌면 우리에게 더 멋진 일이 있을지도 몰라> 전시 전경

↓ 아트센터예술의시간 <뉴홈> 전시 전경 ©2026. ACAM and Artists

↓↓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신생 공간인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김태웅



려낸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는 전시를 하나씩 따라가다보면, 익숙한 도시의 풍경 위로 새로운 예술의 지형이 펼쳐질 것이다.

금천 미술벨트 주요 전시

《뉴홈》
9월 19일까지 | 아트센터예술의시간 2·3층
*일요일·공휴일 휴관

《어쩌면 우리에게 더 멋진 일이 있을지도 몰라》
9월 1일~10월 11일 |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1층 전시실 3
*월요일 휴관

《김희천: 두더지들》
8월 20일~11월 8일 |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지하 1층 전시실 1·2 *월요일 휴관

《신진예술인 그룹전》
9월 17~19일 | 만천명월예술인 家

《금천미술협회 정기전》
9월 11~19일 | 금나래갤러리 *일요일 휴관

《종점에 모인 좌표들》
9월 17~19일 | 범일운수종점Tiger1

금천이라는 좌표, 우리가 연결되는 방식

하나의 예술 지도를 만드는 일은 공간과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연결을 어떻게 지속하고, 지역 안에서 어떤 관계와 기반으로 남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9월 18일, 금천예술공장에서 열리는 라운드테이블 〈금천이라는 좌표, 우리가 연결되는 방식〉은 금천이라는 독특한 지역 맥락 안에서 축적된 예술의 궤적을 돌아보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지도를 그려본다. 모더레이터이자 프로그램 기획을 맡은 이경미 큐레이터와 함께 서남권 시각예술 생태계를 만들어온 문화예술기관의 실무고민부터 창작 현장에서 지역의 변화와 현실적인 제약을 마주해온 작가들의 경험까지 한자리에 모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부 ‘지도를 그리는 시선: 현장을 여는 고민과 연대’와 2부 ‘지도를 따라 걷는 발걸음: 궤적이 남긴 질문들’이라는 두 개의 시선으로 진행된다. 제도

와 현장을 잇는 관계망을 살펴보고, 지역에서 예술가가 지속적으로 창작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협력의 방식을 함께 이야기한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쌓아온 경험과 질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곳 금천에서 시작된 연결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찾아볼 예정이다.

무엇보다 금천의 시각예술 현장을 만들어가는 협력 기관 관계자들과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1기부터 17기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시기를 거처온 박소라·정정주·정정호·정혜정·조재영·임흥순 작가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데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의의가 있다. 서로 다른 위치와 시간에서 쌓아온 고민을 나누는 이번 자리는 과거의 성과를 되짚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예술가, 기관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속 가능한 시각예술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 질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금천 미술벨트는 여러 공간을 하나의 이름 아래 모아놓은 행사를 넘어, 서로 다른 역사와 역할을 지닌 공간과 예술가, 그리고 지역의 일상을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오랫동안 예술가의 창작과 실험을 지원해온 금천예술공장, 지역 예술인의 성장을 돕는 금천문화재단, 새로운 미디어와 감각을 소개하는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독자적인 시선으로 전시를 만들어온 민간 예술 공간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시간이 연결되며 금천만의 새로운 예술 지형을 만들어간다.

모든 공간을 한 번에 둘러볼 필요는 없다. 관심 있는 전시를 따라 하루의 동선을 만들거나, 익숙한 동네를 산책하듯 천천히 걸으며 우연히 작품을 발견해도 좋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서로 다른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것도 또한 금천 미술벨트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다. 9월, 서로 다른 공간을 걷고 머무르며 금천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 예술을 만나보자. 그 여정 속에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은 조금 다르게 보이고,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술의 장소와 시간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026 금천 미술벨트: 공동의 지형, 이어진 시간
9월 17~19일 | 금천예술공장 및 금천구 일대 문화예술 공간

예술로 물든 가을, 도시를 춤추게 하다



도시 전체가 춤추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가을이 온다.

뚝섬으로부터 한강 물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예술로 가득한 도시 풍경을 미리 둘러보자.

‘서울’이라는 무대를 즐기는 법

큐레이션으로 보는 2026 서울어텀페스타

이하늘 서울문화재단 축제정체팀

2026 서울어텀페스타 참가작

8.23~10.3 제15회
그랜드 오페라 축제
구로아트밸리·중랑구장미공원

8.28~9.19 STAGE 100: 9월
연극제 NC문화재단 Stage Black

9월 서울커넥트스테이지 ON
창단공연

9.2~9.19 제29회
서울세계무용축제
강동아트센터·나루아트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은평문화예술회관·
서울무용창작센터

9.2~9.23
서울Y클래식페스티벌:
Brass Edition 보스턴제임버
코스모스아트홀 등

9.2~12.29 서울시민예술학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양천·강북·서초·은평

9.3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제185회 마티네콘서트
광림아트센터

9.4~9.20 〈당신의 손〉
연우소극장

9.5 〈소월, 달이 지기 전에〉
성수아트홀

9.7~10.11 PLOT STAGE
극장 PLOT

9.8~12.27 퀴드, 연극의 질문들:
진화하는 텍스트 대학로극장 퀴드

9.9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제118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광림아트센터

9.11~9.19 사계절여행연극시리즈
#가을 〈묘시의 알베르케〉
성북마을극장

9.11~9.13 서울어텀페스타
사전특별공연 〈간간밤〉
소월아트홀

9.12~9.19 〈푸른 점의 진주〉
서강대학교 메리홀

9.12~9.19 〈사계 四季〉
전통공연창작마루

9.12~10.3 〈스미레 미용실〉
세종문화회관

9.15 강남합창단 〈Beyond
the Limits Series I 'Choral
Spectrum'〉

9.16~11.29 〈연의 편지〉
플러스씨어터

9.16~9.20 〈최초의 웃음〉
열린극장

9.16~12.9 〈밤과 후 놀이터〉
노원어린이극장

9.17~9.20 〈리시스트르타
리부트〉연희예술극장

9.17~9.23 〈번식하는 곰팡이〉
선돌극장

9.17~10.22 제1020회
목요예술무대 강남씨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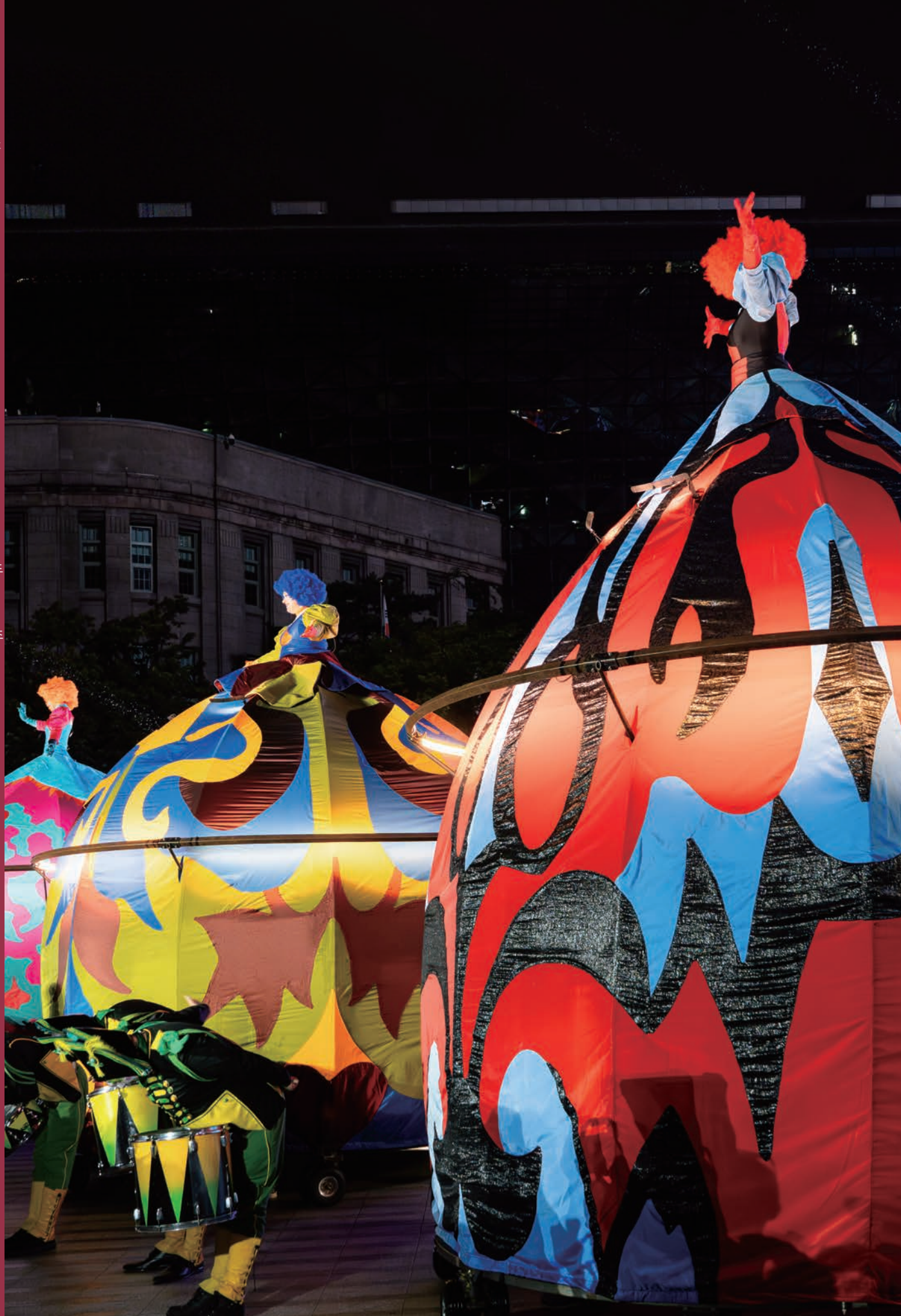
9.18 서울어텀페스타 개막 행사
〈서울, 한강에서 춤을〉
독서한강공원 수변무대

9.18~9.19 글로벌
이상한 챔버오케스트라
노원문화예술회관

9.18~11.29 〈조이풀 스텝〉

9.18~9.19 〈시알-썩,
여기까지만〉플랫폼엘 라이브

9.18~9.19 〈검검〉
대학로예술극장



9.18~9.27 뮤지컬 〈이모션 코드〉
여행자극장

9.18~9.20 2026 서울스테이지
서울숲 야외무대

9.18~9.20 창작 댄스 뮤지컬
〈조선쉐프 한상궁〉서울숲

9.18~11.27 〈와인&멜로디〉
선농단역사문화관

9.18 강남편 〈일의 악장〉
코엑스 라이브플라자

9.18~9.20 문래예술제
영등포구 문래창작촌 일대

9.18~9.19 〈고래바위에서
기다려〉꿈빛극장

9.19 오페라 넥스트: 세비야의
이발사&피가로의 결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9.19 제8회 썬믹 페스티벌
서보아트스페이스

9.19 인사국악페스티벌
남인사마당 일대

9.19~9.20
서울거리예술축제2026
독서한강공원·서울숲

9.19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강남씨어터

9.19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뮤직 팝업〉개포16근린공원

9.19~9.20 〈의자 고치는 여인〉
나루아트센터

9.19 〈공놀이클럽의 사계절
체움: 세자매〉마포아트센터

9.20 월드하프심포니
영산아트홀

9.20 한국 가아금 서정민&
대만 비파 수운한 〈無疆 II〉
서울문화문국악당

9.20~10.23 제35회 전국무용제
in Seoul 나루아트센터·국립극장

9.21~9.23 제9회
서울국제댄스페스티벌 인 탱크
문화비축기지

9.21~10.31 워커힐 가을 축제
워커힐호텔

9.23 〈화중무: 그림 속의 춤〉
국립국악원

9.23~12.12 천장산문화예술학교
〈스테이지셋업〉천장산우회극장

9.24~9.27 〈강 너머〉
CKL스테이지

9.25~9.27 NT Live 〈서쪽
나라의 뗏장아〉, 〈모두가 나의
아들〉, 〈더 피프스 스텝〉국립극장

9.27 〈토투가 마리아〉
선유도공원

9.27~10.25 제14회
가프공연예술제 구로창의아트홀

9.28~11.29 제6회
소극장 공유페스티벌
소극장 공유·후암스테이지

9.29~10.4 〈구멍, disoriented〉
마포새빛문화술회

9.30~10.11
〈스위스조력사인터뷰 대비
성인영어회화클래스〉나온씨어터

9.30~10.30 여주인공 페스티벌
미마지아트센터

9.30 〈2026 MAC 모닝 콘서트
#7〉마포아트센터

10.1~10.3 〈두아: 유월의 눈〉
금천뮤지컬센터

10.1~10.4 헨리 6세 3부작
서강대학교 메리홀

서울의 가을은 걷기 좋은 계절이다. 선선한 바람을 따라 한강을 걷고, 대학로 골목을 지나고, 광장과 공원을 마주하다보면 도시 풍경도 조금 다르게 보인다. 올라 올 때는 극장은 물론 거리 위에서도 공연과 축제를 만나보자. 한강이 무대가 되고, 공원이 객석이 되며, 도시 곳곳이 예술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73일간 열리는 2026 서울어텀페스타는 서울 전역의 공연과 축제를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해 선보이는 통합 공연예술 플랫폼이다. 축제 38개, 공연 478편을 비롯해 총 245개의 참가작과 558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연극·무용·음악·전통·거리예술 등 다양한 장르로 서울 곳곳을 채운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무엇을 볼까’ 하는 고민도 커진다. 그래서 올해 서울어텀페스타는 공연을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관객의 취향과 관심사, 관람 목적과 일정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공연을 발견하도록 큐레이션을 제안한다. 좋아하는 장르를 따라가도 좋고, 평소 접하지 않은 새로운 예술에 도전해도 좋다.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이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73일간 수많은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보느냐보다 나에게 맞는 한 편을 어떻게 발견하느냐일지도 모른다.

서울의 가을은 한강에서 시작된다

축제의 첫 장면은 한강에서 열린다. 9월 18일 독서한강공원에서 개막행사 〈서울, 한강에서 춤을〉이 펼쳐진다. 무용가 이루다가 예술감독을 맡고, 소리꾼 오정해를 비롯해 최호중, 서울시무용단,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 무용단, 뮐랑폴리댄스컴퍼니, 더 스토리즈 크루, 안성수픽업그룹, 블랙투무용단 등 국내 정상급 예술가가 함께한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춤’으로 풀어낸 공연으로, 시민 1만여 명이 자리해 73일의 여정을 시작한다. 현장에 자리할 수 없다 해도 아쉬워 말자. SBS 〈문화가중계〉에서 녹화 방송으로도 만날 수 있다.

개막 행사의 열기를 이어, 9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뚝섬한강공원과 서울숲 일대에서 서울거리예술축제 2026가 이어진다. 서커스와 퍼레이드, 이동형 공연을 따라 걷는 ‘아트레킹Artrekking’을 통해 관객은 객석을 벗어나 도시를 직접 무대로 경험한다. 서울어티페스타의 첫 주말은 이렇게 공연을 ‘보러 가는’ 것에서 공연을 따라 ‘걷는’ 경험으로 시작된다.

대학로를 출발점으로
나만의 공연을 찾아보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대학로에 마련된 통합정보센터를 찾아보자. 9월 중순부터 11월 29일까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 운영되는 통합정보센터에서는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공연과 축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키오스크를 이용한 공연 검색과 취향 기반 추천, QR코드 예매 연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수많은 공연 가운데 무엇을 볼지 고민될 때, 나에게 맞는 공연을 찾는 가장 가까운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특히 대학로에서는 공연을 중심으로 가을밤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70여 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서울문화재단의 ‘다시, 대학로’ 리브랜딩 캠페인 ‘대·락樂로’와 함께 공연 전에는 서울연극센터 ‘제철연극’에서 개막을 앞둔 기대작을 미리 만나고, 공연 후에는 ‘애프터 시어터’에서 관객과 감상을 나누며 여운을 이어갈 수 있다.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댕로마켓’까지 더하면 공연 한 편을 보는 일이 대학로의 밤 전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

새로운 예술가와 작품을 만나고 싶다면 ‘서울커넥트 스테이지 ON’을 추천한다. 연극·무용·전통 등 총 7팀의 젊은 창작자들이 서울연극창작센터·서울무용창작센터·서울예술교육센터 강북 등 장르별 전문 공연장에서 자신만의 작품을 선보이고 관객과 만난다. 아직 이름은 낯설지라도 지금 서울 공연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창작자들의 무대를 통해, 동시대 예술의 새로운 감각과 가능성을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코끼리키펠력의 연극〈모안의 몬스터〉는 특별하거나

- 10.1~10.7 〈매니문〉 아르크예술극장
- 10.1~10.3 한강국제무용축제 〈돌아온 하멜〉 예빛섬
- 10.1 제29회 창작신인인무가전 나루아트센터
- 10.~10. 해외 안무가 초청 워크숍-우메다 히로아키 서울무용창작센터
- 10.1 제1021회 목요일예술무대 강남씨어터
- 10.1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제186회 마티네콘서트 광림아트센터
- 10.1 〈세비야 이발소, 오늘은 사랑 영업중〉 오투아트홀
- 10.1 최정돈 〈Pansori likes Jazz〉서울돈화문국악당
- 10.2~10.4 〈리어와 말뚝이〉국립극장
- 10.2 〈Viva Puccini!!〉광림아트센터
- 10.2~10.25 서울연극창작센터 공간개방축제 〈장면출고〉서울연극창작센터
- 10.2~10.24 〈오펜랩 씨어터〉서울연극창작센터
- 10.2~10.25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마포아트센터
- 10.2~10.11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노들섬
- 10.3~11.29 제나스킵 창작 피아노 콘서트 〈Zenith Nadir: 정점과 심연〉아트스페이스노
- 10.3~10.4 〈겉다바라보다 그리고 서다〉DDP 아트홀 2관
- 10.3~10.17 동대문페스티벌 장한로 일대
- 10.3 공연 〈모두 함께〉장한로 일대
- 10.3~10.4 사육신 프로젝트 사육신역사공원
- 10.3~10.4 강남페스티벌 도산공원 사거리 일대
- 10.4 〈귀감: 창귀를 쫓다〉여의도한강공원·마로니에공원·남인사마당
- 10.4 정명훈×KBS교향악단 〈베토벤과 브람스〉세종문화회관
- 10.6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제119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광림아트센터
- 10.6~10.17 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 세종문화회관
- 10.6 누구나 클래식 with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세종문화회관
- 10.7~10.8 작곡가 정원기의 〈다섯 줄〉국립국악원
- 10.7 김도현 피아노 리사이틀 〈Moments&Eternity〉예술의전당
- 10.7 〈BALLET RO-훈민정음 Ver2.〉영등포아트홀
- 10.7~10.10 온소 페스티벌 온드림소사이어티 일대
- 10.7~10.11 〈상상을 믿는 유일한 동물, 호모 사피엔스〉설렘아트홀
- 10.8 〈RE:DREAM: CONNECTED〉플랫폼엘
- 10.8~11.1 〈몬스터, 허균〉대학로 스튜디오블루



- 10.8 공명 콘서트 〈Resonance〉LG아트센터 서울
- 10.8 〈사라진 소리의 흔적〉거암아트홀
- 10.8~10.16 서울국제음악제 예술의전당·롯데콘서트홀
- 10.8~10.11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마포아트센터
- 10.8~10.17 은평 에브리바디 페스티벌 은평문화예술회관
- 10.8~10.11 국립무용단 〈더블빌: 시나위〉국립극장
- 10.9 경주소리시리즈 〈매나리, 짓의 노래들〉서교스퀘어
- 10.9~10.11 돈화문브랜딩 〈소리연애〉서울돈화문국악당
- 10.10~10.11 〈모서리〉에림당아트홀
- 10.10~10.11 한국장단음악축제 장단유치
- 10.10~10.11 파브리카 유로파 페스티벌 초청 〈That's All Folks!〉서울무용창작센터
- 10.10 동작 서커스 데이 노랑진 축구장
- 10.10 〈벽 속의 요정〉용산아트홀
- 10.10 송파편 〈여가의 리듬〉가든파이프 잔디광장
- 10.10 예술제 피어난 우리 1 연신내 GTX광장 등
- 10.12~12.19 대한민국 작곡제전 예술의전당·일신홀
- 10.12~10.18 을지로 로컬 워크 을지로 일대
- 10.12 〈타악기와 함께하는 카르멘 여행〉광림아트센터
- 10.14~10.25 〈저승난장〉드림시어터
- 10.14 제4회 GSO삼릉음악회 라움아트센터
- 10.14 M 클래식 축제 〈하나의 울림〉마포아트센터
- 10.15 한국하프시코드협회 〈건반 음악의 이정표를 찾아 II〉일신홀
- 10.15~10.16 〈차나깨비 이야기〉아르크코발극장
- 10.15~10.25 〈반려가전 A/S 합니다〉연희예술극장
- 10월 중 〈Goodbye Summer, Hello Autumn〉서초구 내 도서관
- 10.15~10.18 서울발레페스티벌 수변무대 아뜰리에
- 10.15 마티네콘서트 With 금난새 #3.베버 영등포아트홀
- 10.15~10.16 서울시향 앞 판 초베덴의 모차르트 '주피터' 예술의전당
- 10.16~11.15 〈파편〉봄날아트홀
- 10.16~10.18 〈21일: 엔딩을 정하는 중입니다〉삼일로창고극장
- 10.16~11.6 ST-NOVA 서울연극창작센터
- 10.16~10.17 안애순컴퍼니 〈춤이 말한다: 문소리×리아킴〉꿈빛극장
- 10.16~10.17 강동편 〈섬의 정원〉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강동아트센터

극적인 누군가의 이야기를 넘어 ‘평범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고, 프로젝트 잇구의 판소리 음악극 〈환영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은 전통예술의 언어를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새로운 무대를 보여준다. 김진우·양다원의 무용 작품 〈Awaking〉은 두 무용수의 정교한 파트너링과 신체 움직임을 통해 몸으로 전달되는 춤의 힘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장르와 표현 방식을 가진 이들의 작품을 따라가다보면, 지금 서울의 젊은 예술가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과 가족 관객이라면 서울시의 청소년 공연 관람 지원사업 ‘공연봄날’과 서울어티페스타가 만나는 프로그램도 눈여겨보자. 뮤지컬 〈긴긴밤〉, 〈타악기와 함께하는 카르멘 여행〉 등 어린이·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도심 곳곳에서 관객을 기다린다.

오직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객에게는 ‘K-Arts 큐레이션’을 권한다. 한국의 전통과 동시대 예술을 처음 만나는 관객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전통음악부터 동시대 연극과 무용·시각예술까지 이 도시에서 경험할 만한 작품을 한데 모았다.

9월 20일 돈화문국악당에서는 한국 가야금과 대만 비파가 만나는 〈무강無疆 II〉, 10월 8일 LG아트센터 서울에서는 전통악기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콘서트 〈Resonance〉를 만날 수 있다. 10월 23일과 24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리는 리퀴드사운드의 〈네오펀데이션〉은 한국·중국·일본의 젊은 아시아 전통예술가들이 각자의 전통을 동시대적으로 풀어낸다.

한국 연극의 과거와 현재가 궁금하다면 대학로극장 퀴드의 ‘연극의 질문들: 진화하는 텍스트’도 주목할 만하다. ‘초기술 시대에 연극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며 텍스트와 무대라는 연극의 본질을 다시 들

여да보고, 한국 연극사를 일궈온 거장의 삶과 예술을
오늘의 감각으로 재조명한다. 외국인 관객에게는 스
마트 안경을 통한 실시간 번역 자막을 제공해 언어의
장벽도 낮췄다.

한국의 예술이 세계와 만나는 장면도 있다. 10월 10
일과 11일 서울무용창작센터에서 열리는 <That's All
Folks!>는 이탈리아 피렌체 파브리카 유로파 페스티
벌Fabbrica Europa Festival과의 교류를 통해 작품을 소개한
다.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는 언폴드엑스2026에서는 서울의 역사적 공간
과 동시대 예술이 만나는 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

공연을 넘어

예술의 미래를 만나다

좋은 공연을 보고나면 때로 이런 질문이 남는다. '우리
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예술은 어떤 모습일까?' 서울어
텀페스티벌은 그 질문을 공연장 밖으로 확장한다. 11월
17일 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예술포
럼SAFT 2026은 세계 각국의 예술가와 연구자, 문화예
술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인간과 예술, 그리고 관계
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자리다.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석학 다니얼 리Daniel Dongyuel
Lee 코넬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미디어아티
스트 트레버 페글렌Trevor Paglen, 페스티벌 시티 애들레
이드Festival City ADL CEO 글린 로버츠Glyn Roberts를 비
롯한 세계 각국의 예술감독과 예술가·연구자들이 서
울에 모인다. 인공지능이라는 낯선 지능이 인간의 선
택과 판단, 창작과 관계의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시대
에 과학과 인문학의 관점에서는 인간과 지능의 미래
를, 예술가와 철학자의 시선에서는 예술의 역할과 새
로운 지성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어 도시의 문화공
간과 축제, 극장과 공연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만나고
함께 경험해온 방식이 무엇을 이어가고 어떻게 변화
하며, 또 어떤 새로운 연결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지 전망한다.

서로 다른 학문과 예술, 도시의 경험이 교차하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 속에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10.17 제 4회 모두의 풍류·인왕산
인왕산 수성동계곡

10.17~11.8 <내게 빛나는 모든
것>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10.17 강동 바람꽃 축제×강동
북페스티벌 강동아트센터

10.17 클래식 토크 콘서트
<두 남자 이야기> 강동아트센터

10.17 도시 리듬 프로젝트-
댄스 퍼레이드 금천구청 일대·
금나래중앙공원

10.17 공연봄날 페스티벌
어린이대공원

10.18 조선아트북 新 악학궤범
세종문화회관

10.18 록 반 바벨 트리오&스콧
해밀턴 JCC아트센터

10.18 <고사리소리:
GOSARISORI> 서울남산국악당

10.19~10.23 <so: sum: sheep>
스페이스K서울 문화공원

10.19~10.25 효자로 로컬 워크
종로구 효자로 일대

10.21~10.24
서울오페라페스티벌
강동아트센터

10.22 뮤지컬 <페이크북>
강남씨어터

10.22 제1023회 목요예술무대
강남씨어터

10.22 M 클래식 축제
<김도현×이수빈 듀오 리사이틀>
마포아트센터

10.23~10.24
네오투라디션(Neo-Tradition):
한중일 청년 전통예술가 협업
프로젝트 Vol.2 남산골한옥마을

10.23~10.24 인터랙티브 딜미쇼
<그건 문제가 아니야> 동네극장

10.23~10.25
<EN: TRANCE(엔:트랜스)>
LG아트센터 서울

10.23~11.1 <그라고 다 가볼고
낭개> 공간아울

10.23 서울시무형유산 석암제
시조 지정 10주년 기념 공연
한국의집

10.23~10.24 마스터피스 토크
<Next Legacy 춤을 잇다>
서울무용창작센터

10.23~10.24 2026 수안연극제
마울극장 희고무신

10.23~10.24 월드뮤직 콘서트
<Plastic Island> 호원아트홀

10.23~10.24 서울시합창단
<가곡시대> 세종문화회관

10.23~10.25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 국립극장

10.24 음악오늘 스물한 번째
이야기 <전기의 맛> 서교스퀘어

10.24 <조금은 특별한 피노키오>
꿈빛극장

10.24~10.25
영등포선유도원축제
선유도원공원·선유도역 일대

10.24~10.25 서울발레시어터
<가을밤 낭만발레> 영등포아트홀

10.24 동대문 페스티벌 팝업 in
강북 한신대학교

10.24 공연 <모두 함께>
꿈빛극장

10.24 예술제 피어난 우리 2
신촌 스타광장



10.24~11.14 서울시극단
<아.파.트> 세종문화회관

10.25 도시 리듬 프로젝트-
밴드공연 신정네거리역 일대

10.26~10.27 21세기악회
제67주년 기념
작품발표회-포플러 시리즈
일신홀·예술의전당

10.26~11.1 해방촌 로컬 워크
용산구 해방촌 일대

10.27~11.1 <필경사, 박들비>
스카이씨어터

10.27 M 클래식 축제 <전수진의
피아니즘> 마포아트센터

10.28 사이의 음악-빛과 여백
일신홀·예술의전당

10.28 파파 하이든-에스터하지
궁정의 바리톤 음악 예술의전당

10.28 M 클래식 축제
<뮤라벨콘서트> 마포아트센터

10.28 <2026 MAC 모닝 콘서트
#8> 마포아트센터

10.28 청소년을 위한 공명 콘서트
<기린자리> 서강대학교 메리홀

10.29~11.8 <바르도>
R&J씨어터

10.29~11.3 서울의 가을, 시가
되어 흐른다: 팜페라 콘서트
광화문광장·서울광장·
마로니에공원 등

10.30~11.8 <무화과>
아르코광발극장

10.30~10.31 <가정무도>
강북문화예술회관

10.30~10.31 <Confluence:
Stories of Memory, Identity, and
Belonging> 서울무용창작센터

10.30~10.31 <옵니버스
인형극 음악광경 인형극장>
KT&G상상마당 대치아트홀

10.31 <시간의 두께>
언더스탠드에비뉴

10.31 <전통 속 전통>
갈산문화예술센터

10.31 <심해: 새벽4시>
신촌문화발전소

10.31 <소리의 진법>
우람문화재단 우람2경

10.31 바흐솔리스트서울
<바흐 프로젝트V 바흐와 제자들>
예술의전당

10.31 델로마켓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10.31 옵니버스 넘버벌 인형극
<환상공간> 광진어린이공연장

11.1~11.21 에튀드 스펙트럼 I & II
피아니스트 지유경
예술의전당·일신홀

11.1~11.28 제 5회 7연극전
극장봄

11.1~11.15 서울경기춤페스타
남산골한옥마을

11.1~11.30 서울연극25페스티벌
스카이씨어터

11.1~11.30 강남합창단
<샬러맨 칸타타>

11.2~11.23 월드 2인국 페스티벌
예술공간 혜화·창조소극장·
극장 동국

11.4~11.21 걸리버 여행기: 줄 인
아웃-워킹홀리데이 하명세극장 2

11.4~11.29 서울무용제
아르코예술극장·서울무용창작센터



11.4~11.29 관악아트페어
문화플랫폼 S1472

11.4~11.5 〈U's again 2!〉
서강대학교 메리홀

11.4 문현 〈문현의 12가사
완창 시리즈2-6가사 半唱〉
서울돈화문국악당

11.5~11.7 〈길 위의 아이〉
금천뮤지컬센터

11.5~11.29 서울미래연극제
서울연극장작센터

11.5~11.25 〈라플레이〉
서울연극센터

11.5~11.7 〈크로키키 브라더스〉
오류아트홀

11.5~11.8 서울시오페라단
〈라 보엠〉 세종문화회관

11.6~11.20 〈숨비소리, 해녀들의
노래〉 서리풀아트스튜디오

11.6~11.10 뮤지컬, 〈바람으로의
여행〉 대학로 스튜디오 블루

11.6~11.7 〈+Tic〉 모두예술극장

11.6~11.8 〈붉은 장미, 검은 숲〉
플랫폼74

11.7~11.8 〈생멸〉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11.7~11.8 코리아발레스타즈
〈호두까기인형〉
우리금융아트홀

11.7 박희수의 정가 〈설화〉
서울돈화문국악당

11.7 사라져 간 목소리들 5~제주
플랫폼엘

11.7~11.8 오락가락 광진광장

11.7 박건&김원재 피아노
페스티벌 〈한강의 파동〉
노들섬

11.7~11.8 〈신,시나위: 합이위일〉
소월아트홀

11.7 KBS교향악단 태교음악회
아르코카멜리아홀

11.7 도란도란 클래식 시즌2:
베토벤 영등포아트홀

11.7~11.15 N.E.W-North East
Wave 2 망우역 광장·
도봉구평화문화진지·
나루아트센터·당현천 당현마루

11.10 누구나 클래식 with
대전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11.11~11.12 충북도립극단
〈선생님이 좋아서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11.12~11.22 콰르텟 씨어터 콤

11.12 '열정' 탱고와 재즈의 만남
예술의전당

11.12 〈비발디, 화성과 창조의
영감〉 은평문화예술회관

11.12 〈호두까기인형〉
송파문화예술회관

11.13~11.15 장난감음악제
샤론아트홀·컴플렉스갤러리·
더샬갤러리

11.13~11.22 〈투신〉
마포아트센터

11.14~11.20
전국어린이연극잔치
아르코꿈발극장·메타버스 ZEP

11.14 서울무용센터 하반기
입주예술가 작업공유회
서울무용창작센터

11.14 〈최태지의 발레 오픈
리허설 II〉 강동아트센터

11.14~11.15 가족인형극
〈달레이아기〉 나루아트센터

11.15 〈무간: 들리지 않는 빛,
보이지 않는 소리〉
꿈의숲아트센터

11.15 〈LUX〉 국립국악원

11월 리:부트 시리즈 IV: 별곡이

11.15~12.5 〈코끼리를 보았다〉
서울무용창작센터

11.16 〈어둠시나〉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

11.17 서울국제예술포럼
DDP 아트홀 2관

11.19~11.29 〈먼지여자〉
연우소극장

11.19 〈고래의 만트라, 예코 샤먼〉
서울남산국악당

11.19~11.22 〈피안의 여행자들〉
서울무용창작센터

11.19~11.22 서울시발레단
트리플 빌 〈올 포 한스 판 마넨〉
세종문화회관

11.19~11.20 서울시향
한누 린투의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롯데콘서트홀

11.20~11.21 〈박람회〉
템센드 갤러리 2

11.20 〈태어남의 환호, 떠남의
침묵〉 경동교회

11.20~11.21 대학로 아트무드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11.20~11.21 브런치콘서트
11시 11분-비바 바르셀로나:
안토니 가우디 꿈빛극장

11.20 〈이테리 만토바 체임버
오케스트라〉 용산아트홀

11.21~11.28 근심 3부작: 1부
〈양치기〉 KU씨네마테크

11.21 키즈예술공연
〈해피 해프닝〉 강남씨어터

11.21~11.22 최현 우리총원
나루아트센터

11.23 〈멈춰진 시간-고요 속
울림〉 세종문화회관

11.24 〈계산을 넘어선 감각〉
일신홀

11.25~11.29 〈마흔에서〉
봄날아트홀

11.25 GSO살롱음악회
라움아트센터

11.25 〈2026 MAC 모닝 콘서트
#9〉 마포아트센터

11.26~11.28 〈아임 낫 차이니즈〉
청년예술청

11.26~12.9 언폴드엑스
문화역서울284

11.26~12.5 국립창극단
〈오이디푸스〉 국립극장

11.27~11.29 피어 리뷰
연희예술극장

11.27~1.24 마당놀이
〈춘풍쳐도 온다〉 국립극장

11.28~11.29 타악기 협주곡
프로젝트 〈원음〉
더쑈아트센터

11.28 무드 오브 더 데이
언더스탠드예바뉴

11.29 The Classic-사운드
스테이지 앙상블 정기연주회

11.29 〈공놀이클럽의 사계절
체플: 갈매기〉 마포아트센터

되어가는지 짚어보고, 그 안에서 인간과 예술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질문한다.

공연을 보고, 새로운 예술을 만나고, 그 예술이 향할 내
일을 생각해보는 것. 서울어텀페스타에서 축제는 현
재의 예술을 경험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상
상하는 시간이 된다. 73일은 짧지 않다. 퇴근길 잠시
들른 대학로에서 뜻밖의 연극을 만날 수도 있고, 주말
에는 가족과 함께 걸으며 서울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
껴볼 수 있다. 오래 기다린 공연을 만나거나, 처음 알게
된 예술가의 작품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

서울어텀페스타에는 정해진 관람 순서가 없다. 누군
가에게는 강변에 펼쳐진 춤이, 누군가에게는 한 편의
연극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낯선 예술가와의 첫 만
남이 이번 가을의 기억이 될 것이다. 공연을 만나러 걸
어간 길, 우연히 마주친 음악, 공연이 끝난 뒤 나눈 이
이야기까지. 그렇게 쌓인 순간들이 모여 저마다 다른 가
을을 만든다.



2026 서울어텀페스타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 서울 시내 일대

2026 서울어텀페스타 개막 행사 〈서울, 한강에서 춤을〉
9월 18일 오후 7시 30분 | 독서한강공원 수변무대
연출 이루다, 출연 서울시무용단·멜랑콜리댄스컴퍼니·포스·
최호중·블랙토무용단 외

2026 서울국제예술포럼
11월 17일 | DDP 아트홀 2관

*서울어텀페스타 참가작에 관한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서울어텀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fac.or.kr/seoulautumnfesta

광장에서 강변으로 한강에서 즐기는 서울거리예술축제2026

From the Plaza to the Riverside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26 at the Han River

송지나 서울문화재단 축제제작팀
Jina Song Festival Production Team, SFAC

한강을 따라 걷는다. 자전거가 지나가고, 강물 위로 바람이 흐른다. 누군가는 잔디밭에 몸을 뉘고, 누군가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다. 늘 보던 서울의 풍경이다. 그런데 올가을, 이 익숙한 풍경에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8미터 높이의 붉은 기린이 강변을 따라 유유히 걸어가고,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원한다고 외친다. 평범한 산책길이 공연장이 되고, 산책하던 시간은 예술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

프로젝트 날다
〈녹색지능〉
Intelligence Vegetal
by Project NALDA

Walk along the Han River. Bicycles pass by, and a breeze drifts across the water. Someone lies back on the grass, while someone else chats with a friend. It is the familiar scenery of Seoul we see every day. But this autumn, something strange stirs within that familiar landscape. Eight-meter-tall red giraffes stroll leisurely along the riverside, while a hundred people gather to shout out their desires. An ordinary walking path becomes a performance venue, and a casual stroll becomes an encounter with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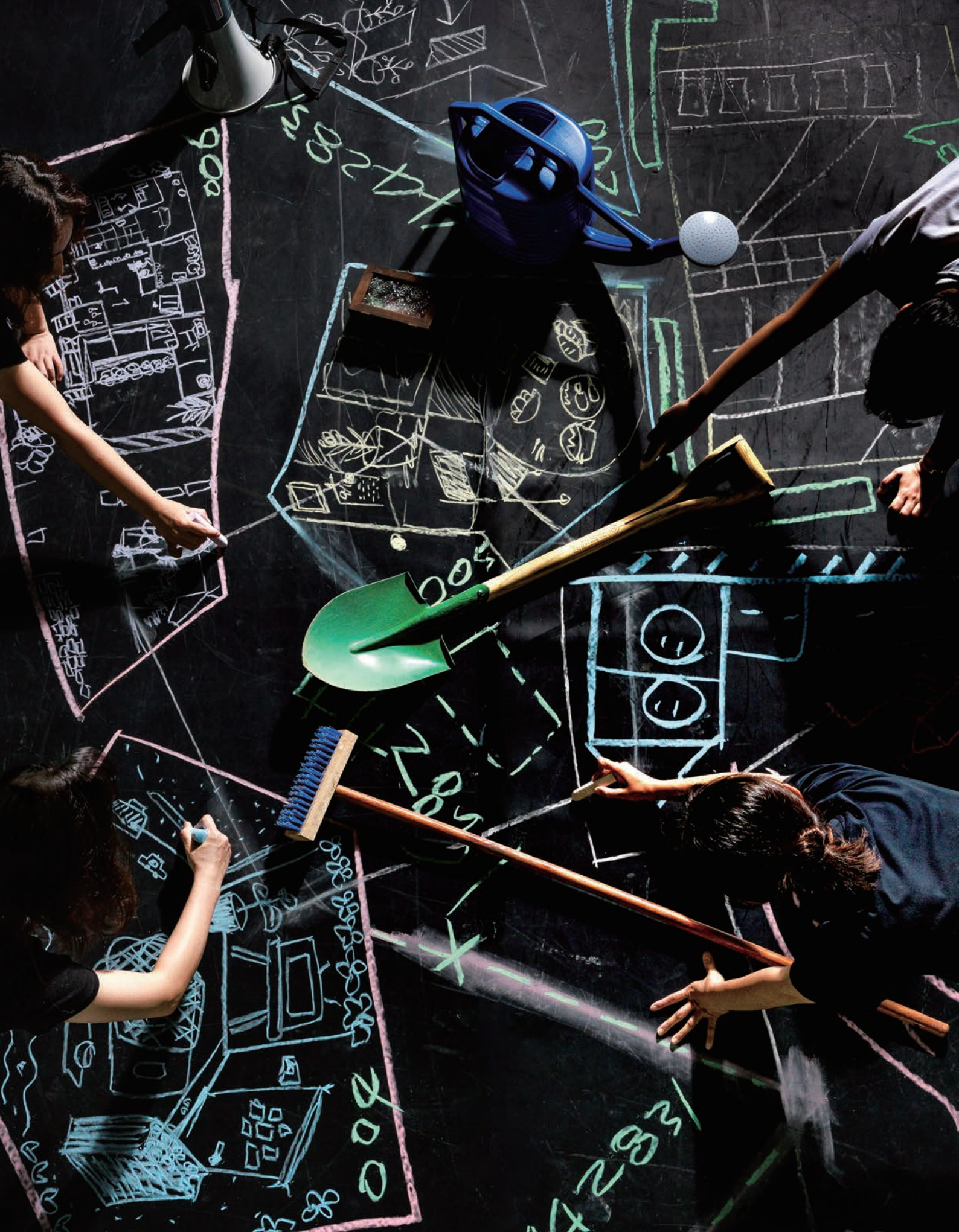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which has long brought citizens together around Seoul Plaza, moves to the Han River in 2026. Taking place from September 19 to 20 at Ttukseom Hangang Park and Seoul Forest,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26 will present 62 performances of 20 works: nine international works from five countries and 11 Korean works to the public. The festival heads to the Han River, a place where citizens live, rest, and find joy, creating unexpected encounters with art in everyday life. Here are five ways to experience the festival right at your doorstep.

One: If You Want to Become Part of the Performance

On Veut by Ktha Compagnie, which featured at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23, returns this year on an expanded scale. One hundred citizen performers, prepared through prior workshops, take to the streets alongside the artists. Rather than watching the performance, citizens become performers themselves.

Getting slapped nowhere, spilling bats at the Han River by gamjapia unfolds with citizens and bat experts setting out together in search of bats, then moves to the festival grounds, where audiences trace their path along the Han River. *Coordinate 442831* by ust project takes the memories of participating citizens as its starting point. Participants draw the homes they carry in their memories;





그동안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시민을 만나온 서울거리 예술축제가 2026년, 한강으로 자리를 옮긴다.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뚝섬한강공원과 서울숲에서 열리는 서울거리예술축제2026은 5개국의 해외 작품 9편과 국내 작품 11편 등 총 20편 작품 62회 공연으로 시민을 만난다. 시민의 삶과 즐거움이 머무는 장소 한강으로 향한 축제는 이제, 일상에서 예술과 우연히 마주치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내 곁으로 찾아온 축제를 만나는 다섯 가지 방식을 소개한다.

하나, 작품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프랑스 크타 컴퍼니의 〈우리는 원해〉는 2023년 서울거리예술축제에 참여한 작품으로, 올해는 규모를 확대했다. 사전 워크숍을 거친 시민 배우 100명이 예술가와 함께 거리로 나선다. 시민은 공연을 관람하는 대신 공연자가 된다.

감자피아 〈~에서 뽕 맛고, 한강에서 박쥐 놀이기〉는 시민과 박쥐 전문가가 함께 박쥐를 찾아 나서고, 축제 현장으로 옮겨서는 관객과 함께 그 흔적을 찾아 한강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상통프로젝트 〈좌표 442831〉은 참여 시민의 기억을 작품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집을 그리고, 그 집들은 어떤 시스템에 따라 남고 사라지면서 기억의 지도를 만들며, 도시의 이야기로 확장한다. 시민은 단순히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작품에 참여하고, 자신만의 장면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둘, 걸으며 축제를 보고 싶다면

한강과 서울숲으로 자리를 옮긴 축제는 그 풍경까지 축제와 공연의 일부로 끌어들인다. 칠레 예술단체 콜렉티보 레푸히오의 〈뿌리내리기〉에서 관객은 식물을 들고 음성 안내에 따라 서울숲을 누빈다. 극단 아이모멘트 〈잉여의 도시〉는 관객에게 상상력을 더해 도시를 탐험하도록 이끈다. 여행자가 된 예술가가 평범한 장소를 서커스와 상상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브라질 마노 아 마나의 작품 〈함께 걷는 길〉도 있다. 이 공연에는 정해진 객석도, 거대한 무대 장치도 없다. 관람

those homes remain or disappear according to a system, forming a map of memory that expands into the story of a city. Citizens are not merely “people who come to watch a show”—they become participants in the work, creating their own scenes.

Two: If You Want to Experience the Festival While Walking

By relocating to the Han River and Seoul Forest, the festival draws even the surrounding landscape into the performances. In *PLANTAR* by Chilean arts company Colectivo Refugio, audiences carry plants and roam Seoul Forest guided by audio narration. *Behind the city* by IMOMENT invites audiences to explore the city with an added layer of imagination. *Shared Pathways* by Mano a Mana from Brazil transforms ordinary places into spaces of circus and imagination, as if artists have become travelers. There are no fixed seats, no towering stage sets. The landscapes and scenes audiences absorb as they walk become the grandest of stages, leading them into yet another realm of imagination.

Three: If You Need Something Extraordinary in Your Familiar Routine

Once art finds its way to the Han River, the Han River is no longer the place we once knew. The most dramatic spectacle is *Les Girafes, Opérette animalière* by Compagnie OFF from France. Seven red giraffes, each eight meters tall, stroll serenely along the Han River while a diva’s voice soars overhead—this parade performance transforms the ordinary Han River into a grand stage. In *Voyage*, Marine Boy portrays the journey of a man in search of his dream, transforming the Han River from an everyday landscape into a site of adventure.

In *Tancarville* by French artist G. Bistaki, an ordinary white sheet becomes at once laundry and ghost, landscape and uncanny object. In *Pocket Juggling* by

유상통프로젝트
〈좌표 442831〉

Coordinate 442831
by ust project

객이 걸으면서 감각하는 풍경과 장면들이 가장 큰 공연장이 되어 또 다른 상상의 공간으로 이끈다.

셋, 익숙한 일상에 특별함이 필요하다면 예술이 한강으로 찾아온 이상, 한강은 우리가 알던 한강이 아니게 된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프랑스 예술단체 컴퍼니 오프의 <기린들, 동물들의 오페라>다. 8미터 높이의 붉은 기린 7마리가 한강을 유유히 거닐고, 한편에서는 디바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 퍼레이드 공연은 평범한 한강을 거대한 무대로 완성한다. 마린 보이의 <항해>는 꿈을 찾는 한 남자의 여정을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내어 한강이라는 일상공간 모험의 현장으로 변모시킨다.

또 다른 프랑스 단체 지.비스타키의 <빨랫줄>에서는 평범한 하얀 시트가 빨래이면서 유명이기도, 풍경이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사물이 된다. 슬로베니아 예술가 언더트리(우로슈 마롤트)의 <포켓 저글링>에서는 손과 공, 주머니처럼 일상의 사물과 사소한 습관이 놀라움과 리듬의 언어를 만든다.

모프로살롱의 <성인물>은 한강에 방공호가 떨어졌다는 과감한 상상으로부터 시작한다. 보통 어른들의 반복되는 일상을 공연으로 마주하는 순간, 관계와 시선 속에서 관객 자신의 일상도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서울숲은 뮤지컬 무대로 변한다. 협력 프로그램 '서울 스테이지 in 어텀'은 뮤지컬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와 뮤지컬 스타를 꿈꾸는 전공생들의 '대학생 뮤지컬 콘서트'를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선보인다. 공원이 뮤지컬을 만나 무대로 탈바꿈하는 순간이다.

일상에서 마주친 예술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던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평범한 사물과 일상을 특별하게 바라보게 한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같은 곳을 걸으면 어제와는 조금 다른 것들이 보일 것이다.

넷, 사람,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싶다면 거대한 기린도 낮선 움직임도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결국 사라진다. 그 자리에 오래 여운을 남기는 것은 사

컴퍼니 오프
<기린들, 동물들의 오페라>
Les Girafes, Opérette animale
by Compagnie OFF
©Mathilde Decaux

Slovenian artist Undertree (Uroš Marolt), everyday objects—hands, balls, pockets—and small habits become a language of surprise and rhythm.

Unspoken Duties by MOMURO SALON begins with a bold premise: an air raid shelter has fallen into the Han River. As the repetitive everyday lives of ordinary adults unfold on stage, audiences find themselves looking anew at their own lives through the lens of human relationships and the gaze of others.

Meanwhile, Seoul Forest transforms into a musical stage. The collaborative program “Seoul Stage in Autumn Festa” presents a “Musical Gala Concert,” bringing together the stars of Korean musical theater, and a “University Musical Concert,” featuring students who dream of becoming the next generation of musical stars, all on an outdoor stage in Seoul Forest. It is a moment where the park meets musical theater and is reborn as a stage.

Art encountered in daily life makes us see anew the spaces we so easily overlook and makes us look differently at ordinary objects and routines. Even after the performances are over, walking the same path will reveal things that look a little different from yesterday.

Four: If You Want to Look at People—and at Yourself

The towering giraffes and unfamiliar movements leave strong impressions, but they ultimately pass away. What lingers long after is the story of people. *S2Hz* by Korea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roupe “The GWANG-DAE” delivers the message as solitary modern individuals find one another and come together with the warmth and wit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nternational works share the same spirit. *Jamais en retraite* by Compagnie Zania from France warmly portrays the issues of aging and friendship in our society through circus.

Fish Introspection by French artist Nilda Martinez expresses a range of emotional states through physical





람의 이야기이다. 연희집단 The 광대의 〈52Hz〉는 고독한 현대인이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메시지를 전통 연희의 유쾌함으로 풀어낸다. 같은 걸을 공유하는 해외 단체의 작품도 있다. 프랑스에서 온 컴퍼니 자니아의 〈은퇴는 없다〉는 우리 사회의 노년 이슈와 우정을 서커스로 따뜻하게 보여준다.

프랑스팀 날다 마르티네즈의 〈물고기의 내면탐구〉는 차이니즈 폴을 활용한 신체 움직임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 리투아니아의 아그네 무랄리테는 〈사라지는 나〉라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시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작품은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나아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나의 고독과 외로움을 마주하면서도 곁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 거리에서 만난 타인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나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 가장 개방된 공간에서 만나는 가장 내밀한 순간이 될 것이다.

컴퍼니 자니아 〈은퇴는 없다〉
Jamais en retraite by Compagnie
Zania ©Anthony Krizmanic

movement on the Chinese pole. Lithuanian artist Agnė Muralytė poetically portrays human vulnerability in *Je m'évanouis*.

These works turn our gaze toward other people, and ultimately toward ourselves. They invite us to confront our own solitude and loneliness while bringing to mind someone who is by our side. At some point, the story of a stranger encountered on the street becomes our own story. It becomes an intimate moment encountered in the most open of spaces.

Five: If You Want to Cross the Boundaries of Everyday Perception

The Han River and Seoul Forest are where city and nature meet. The art unfolding here reaches beyond the scenes in front of us, expanding into new ways of seeing nature and sensing the city. *Intelligence Vegetal* by Project NALDA uses aerial performance from the great

다섯, 일상 감각의 경계를 넘어보고 싶다면

한강과 서울숲은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곳이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예술은 눈앞의 장면을 넘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과 도시를 감각하는 방식으로 확장한다. 프로젝트 날다 〈녹색지능〉은 도시의 커다란 나무에서 펼치는 플라잉 퍼포먼스를 통해 땅·나무·숲과 인간의 연결을 감각하게 한다. 포스의 〈자전〉은 과학적 상상력과 컨템퍼러리 서커스를 결합해 감각적 무대를 선보인다. 231쇼가 선보일 〈231의 스케치북〉에서는 종이와 그림 속에 머물던 아이디어가 실제 움직임과 장면으로 살아난다.

리퀴드 사운드의 〈Vocal Space ‘조각눈’〉은 한국 전통 성악을 해체하고 재조합해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선보인다. 옛 소리가 지금의 공간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인지되는지 탐구하며, 소리와 야의 공간을 만나게 하고, 공간은 다시 소리로 하여금 새롭게 감각된다. 자연과 도시, 현실과 상상, 소리와 공간 사이에서 시민은 그 경계를 감각하고 연결하며 확장하게 된다.

올해의 변화는 또 있다. 지난해 청계천을 걸어서 이동하며 공연을 관람하는 이벤트가 있었다면, 올해는 걷거나 자전거 또는 한강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아트레킹Artrekking을 발전시켜 올해는 축제에 함께하는 대상으로 공연을 큐레이션해 소개할 예정이다.

축제가 끝난 뒤에도 한강의 풍경은 그대로일 것이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가 지나가고, 누군가는 잔디밭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다만 축제가 끝난 뒤 그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조금 달라져 있을지 모른다. 평범한 산책길에서 만난 붉은 기린을 떠올리고, 함께 거닌 사람을 기억하고, 평소에는 지나치기 십상이던 나무와 소리에 잠시 귀 기울이게 되는 것. 축제가 일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쩌면 그런 작은 변화일 것이다. 이번 가을,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우리가 늘 걸던 한강에서 예술로 서로를 만나고, 평범했던 일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든다.

서울거리예술축제2026
9월19일과20일
독서한강공원·서울숲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ssaf.or.kr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26
September 19-20
Itukseom Hangang Park & Seoul Forest
For program details, please visit ssaf.or.kr

trees of the city to let audiences sense the connection between earth, tree, forest, and human. *Jajeon (Rotation)* by FORCE combines scientific imagination with contemporary circus to present a sensory stage. In *231's Sketchbook* by 231's Show, ideas that once lived only on paper and in drawings come alive as actual movement and scene.

Vocal Space 'Jogak NooN' by Liquid Sound deconstructs and recombines traditional Korean vocal music, presenting it with a contemporary sensibility. The work explores how ancient sounds exist and are perceived in modern outdoor spaces. The performance brings sound into the open air, allowing the space itself to be perceived anew through sound. Between nature and city, reality and imagination, sound and space, audiences can sense, connect, and expand across those boundaries.

This year brings further changes. Last year, there was an event where audiences strolled along Cheonggyecheon Stream to take in performances; this year, visitors can enjoy the festival by walking, cycling, or riding the Han River Bus. Building on "Artrekking," first introduced last year, the festival will curate and introduce performances according to different groups of festivalgoers this year.

When the festival is over, the Han River will look the same as it always has. Cyclists will pass along the riverside, and someone will be sitting on the grass with a friend. But the way we look at that scene may have shifted, just a little. We will find ourselves recalling the red giraffes we met on an ordinary walk, remembering the people we wandered with, and pausing to listen to the trees and sounds we would usually pass without notice. Perhaps that is what it means for a festival to enter everyday life—a small change like that. This autumn,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turns the Han River we have always walked into a space for meeting one another through art and for looking at the ordinary with fresh eyes.

맨체스터 데이에서 발견한 전진의 미학

이진아 무용이론가·드라마투르크 | 사진 제공 Manchester City Council

맨체스터 시민을 일컫는 고유한 이름 ‘맨커니언Mancunian’.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노동계급의 기억을 품은 이 도시에서 퍼레이드는 시민을 단순한 구경꾼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거대한 퍼핏과 이동식 구조물은 오직 사람들의 손과 자전거 페달·도르레로만 움직인다. 제작단체 워크 더 플랑크Walk the Plank는 이를 “밀고, 당기고, 페달을 밟고, 재 활용하는 행렬”이라 부른다. 시민의 손과 발이 멈추면 거대한 벌과 새, 책장과 배도 단 1미터조차 나아갈 수 없다. 지난 7월 26일 오후 1시, 세인트 피터스 스퀘어에서 550명 넘는 공연자와 25개 커뮤니티 그룹이 함께한 행렬이 출발했다. 선두에는 맨체스터의 상징인 거대한 여왕벌과 일벌, 그 뒤로는 카탈루냐에서 건너온 전통 거인 인형 게간츠Gegants로 만든 자우메 1세와 비올란트 왕비가 머리 위로 솟아올랐다. 홍콩 정크선과 거대한 책장, 멸종위기 동물을 본뜬 구조물이 뒤를 이었다. 거리를 채운 시민은 비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퍼레이드 행렬에서 있었다. 한국의 부천이나 원주 같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이자 ‘독서의 해National Year of Reading’를 선포한 맨체스터답게, 중앙도서관과 퍼레이드 곳곳에는 거대한 책과 동화 속 인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나니아, 윌리 왕카의 이미지가 등장했다. 이날 맨체스터 도심을 찾은 시민은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0년 맨체스터시의 커미션으로 시작해 올해 16년의 역사를 맞이한 ‘맨체스터 데이’는 팬데믹 이후 다채로운 형태적 실험을 거쳤다. 2023년에는 도시 전체를 해변과 댄스플로어로 바꾼 ‘On Holiday’, 2024년에는 도심 체육 놀이터인 ‘Let the Games Begin!’, 2025년에는 미니

퍼레이드와 음악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026년은 지난 3년간 변주를 거쳐 본래의 대규모 행렬이 온전한 규모로 돌아온 해다. 축제는 과거로 회귀하는 데 머물지 않고, 확장된 광장 공연과 팝업 프로그램을 흡수하며 도시를 관통하는 행렬을 다시 중심축으로 불러들였다.

이 복잡한 조율 과정을 하나의 스펙터클로 조직하는 핵심 엔진이 솔퍼드Salford에 거점을 둔 워크 더 플랑크다. 올해 퍼레이드에는 2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미 완성된 무대에 출연자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일 년 전부터 예술가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의상과 구조물, 움직임과 음악을 함께 준비했다.

이 구조의 중심에는 워크 더 플랑크의 공동창립자 리즈 퓨Liz Pugh가 있다. 그는 인재 개발 프로그램 ‘엘리베이트 Elevate’를 통해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공공 공간에서 대규모 카니발 예술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왔다. 리즈 퓨가 수행해온 작업의 본질은 그가 직접 남긴 한 문장으로 압축된

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그가 말하는 특별함은 평범한 참가자를 화려한 영웅으로 꾸며보이는 것이 아니다. 주민이 거대한 퍼핏을 움직이고 햇불을 들고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노동이 거대한 집단적 장면에 실제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것. 시민은 완성된 스펙터클의 장식이 아니라, 그 스펙터클을 직접 발생시키는 주체로서 자신을 다시 보게 된다. 올해 맨체스터 데이는 리즈 퓨가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물러나는 ‘은퇴작’이었다. 퍼레이드 내내 선두에서 퍼레이드를 이끈 그는 마지막 코쿠 미팅에 일부러 참석하지 않았다. “내가 없어도 우리 팀이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가 전한 이유였다. 2026년 신년 서훈에서 그는 공동 창립자 존 와셀John Wassell과 함께 문화예술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훈장British Empire Medal을 수훈했다.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든 예술가와 기술자에게 돌리는 영예”이자 “문화예술을

통해 희망을 키우고 기쁨을 전하며 공동체를 만드는 이들을 대신해 받은 영예”라고 시상식에 선 두 사람은 밝혔다. 이 훈장이 상징하는 것은 화려한 한 편의 작품이 아니라, 30년간 지속돼온 제작 방법론 그 자체다. 물론 맨체스터 데이의 성취를 워크 더 플랑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워크 더 플랑크가 시민과 관계를 맺으며 축제의 ‘몸’을 만든다면, 야외예술 국제교류 플랫폼 XTRAX는 그 몸이 도시와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혈관’을 구축한다.

이번 축제는 정치·행정적으로도 흥미로운 시의성을 띤다. 맨체스터 데이를 엿새 앞둔 7월 20일, 오랜 기간 광역 맨체스터 시장을 지낸 앤디 버넘Andy Burnham이 영국 총리로 취임했고, 행사를 이틀 앞둔 24일, 맨체스터 도심에 제2 정부 거점인 ‘넘버 10 노스Number 10 North’가 개설했다. 행정 권력의 지역 분산이 선언된 그 주말, 시민은 자신의 몸으로 거리의 흐름을 바꾸며 문화적 분권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 우연은 상징적이다.

물론 맨체스터 데이를 공공 재정과 무관한 순수 풀뿌리 운동으로 신화화할 수는 없다. 이 행사는 맨체스터시의 커미션과 공공지원,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투자, 바르셀로나시와 라몬 룰 연구소Institut Ramon Llull의 지원, 기업 스폰서십과 전문적인 안전 관리 위에서 작동한다. 2025년 행사만 해도 맨체스터 공항 등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제도가 시민을 프로그램의 소비자로 남겨두는지, 아니면 자원과 기술을 제공해 실제 제작의 주체로 일시켜 세우는지다. 맨체스터 데이의 성취는 공공 제도 바깥에서 기적을 만들었다는 데 있지 않다. 일회성 이벤트나 완성된 공연의 유치에 그치지 않고, 공공 자원과 전문 제작 조직, 시민의 시간과 국제 네트워크를 하나의 구조 안에 결합했다는 데 있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거대한 구조물들은 시민의 손과 발에 의해 조금씩, 그러나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연대는 이미 완성된 추상적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박자에 맞춰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조금도 전진할 수 없는, 가장 구체적인 노동과 신체의 방식이 된다. 맨체스터의 거리가 보여준 이 전진의 미학은 오늘날 우리가 예술을 통해 어떤 도시와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되묻는다.



무대 위에서 연기로 관객과 호흡하는 배우 김현진입니다. 배우로 연기를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연출을 비롯한 연극의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조금씩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연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몸소 경험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무대와 인물을 바라보는 깊이가 더 깊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창작 작업에 참여하며 연극 전반에 대한 역량을 차근차근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다채롭고 깊이 있는 무대로 [문화+서울] 독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하는 창작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술적 여정의 첫 씨앗이 뿌려진 것은 2017년, 대학에 다니던 때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무대라는 반짝이는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타인의 삶을 연기해보고 싶다는 가벼운 동경심에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학년이던 어느 날, 장면을 만드는 과제를 준비하며 늦은 밤까지 연습실에

남아 있던 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텍스트 속 인물의 정서가 잘 잡히지 않아 몇 시간 동안 같은 대사를 되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불이 꺼진 어두운 연습실 안에서 희곡 속 인물이 느끼던 고독과 제 안의 감정이 맞닿는 강렬한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쓰인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무대라는 유기적인 공간 속에서 텍스트가 생명력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순간의 힘을 온몸으로 체감한 것이죠. 그 사소하지만 강렬했던 경험 이후, 저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연극이라는 매체 전체가 가진 강렬한 에너지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나를 단단한 '창작자이자 예술가'로 자각한 것은 무대 위의 한 인물을 넘어, 연극이라는 공간 전체의 유기적인 언어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연기를 해오면서 어느 순간 '인물의 대사와 감정은 무대 조명의 빛, 공간을 채우는 음향, 텍스트의 상징성, 그리고 관객과의 숨결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벽한 생명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가 내뿜는 대사 하나가 단지 개인

김현진

b.1998

연극/배우

@kimk0108

2026 '퀴드, 연극의 질문들'
김광보 연출 <옥상 밭 고추는 왜>

2026 S-Arts 글로벌 프런티어

2025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깊은 대표작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 작품에서 저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허씨'라는 인물을 맡아 연기했습니다. 제 실제 나이와는 간극이 큰 연배의 인물을 표현해야 한다는 점도 커다란 벽이었지만, 무엇보다 치매라는 특수한 상태와 그 인물이 품고 있는 부서진 시간의 결을 짚어내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과정이 제 연기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괴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인물의 아픔을 흉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본질에 닿기 위해 치열하게 고뇌한 그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배우로서 무대와 인간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 단계 크게 확장해준 값진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9월 김광보 연출님의 <옥상 밭 고추는 왜> 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소 관객으로 늘 동경해오던 김광보 연출님 그리고 대선배님들과 한 무대에서 숨 쉬며 작업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순간, 하루하루가 꿈만 같습니다. 연습실에서 선배님들로부터 뿔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에너지와 단단한 호흡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됩니다. '허씨'라는 인물을 치열하게 통과하며 단단해진 마음 위에,

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의 모든 오브제와 빛, 그리고 객석의 에너지와 얹혀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완성해 나가는 매개체라는 것을 몸소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 하나, 텍스트의 작은 여백 하나까지도 관객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연 전반의 요소를 다각도로 관찰해나가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내가 단순히 역할을 수행하는 연기자를 넘어 무대라는 세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예술가로 서 있구나'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로서 깊게 호흡하는 동시에, 연극이라는 매체 전체를 한 발짝 떨어져 조망하고 탐구하는 그 입체적인 고민의 과정이야말로 저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예술가로서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사업을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된 연극 <허씨의 시간은 앞으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작품을 뜻

거장 연출님과 선배님들로부터 흡수하는 무대의 깊이를 더해 더욱 매력적인 모습으로 관객 여러분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허씨의 시간은 앞으로 흐르지 않는다>

포착해 내는 연출의 미학적 시선은 배우이자 창작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아주 강렬한 자극이자 배움이 됩니다. '과연 우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깊게 던져준, 오래도록 잔상이 남는 작품입니다.

저는 주로 낮은 공간으로의 여행과, 동료·선배 예술가들과 나누는 치열한 대화를 통해 커다란 창작 영감을 얻습니다. 특히 하나의 텍스트나 인물을 놓고 각자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예술적 시선을 겹쳐보며 밀도 높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 혼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사고의 지평이 트이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특히 연륜과 내공이 깊은 선배님들의 지나가는 한마디나, 동료들의 치열한 고민에서 뿔어져 나오는 생생한 에너지는 제게 있어 선물과도 같습니다.

최근 티켓링크 1975 씨어터에서 공연하고 있는 김정 연출님의 연극 <갈매기>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워낙 유명한 고전 작품이지만, 이번 무대는 체호프의 희곡에 흐르는 예술과 삶, 비극과 상실의 정서가 무대 위 공간 활용과 인물의 정교한 호흡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절망과 좌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과 무게를 털어내고 나아가려는 인물들의 뜨거운 생명력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뿔어져 나오는 배우들의 압도적인 에너지, 텍스트 뒤에 숨겨진 인간의 고독을

감사하게도 최근 제가 속한 극단 '창작집단 하룻밤'이 서울문화재단 S-Arts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에 선정돼, 오는 10월 중국 상하이 프린지 페스티벌의 폐막작으로 초청돼 공연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상하이 진출은 단순히 저희의 공연을 해외 관객에게 선보이는 것을 넘어, 중국 전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다양한 예술가들과 직접 호흡하고 자율적인 네트워킹을 이룰 수 있는 뜻깊은 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예술관을 가진 창작자들과 만나 치열하게 고민을 나누고 그들의 깊은 예술적 시선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뻥합니다.

앞으로의 가장 큰 목표와 계획은 이 소중한 경험을 자양분 삼아 더 넓은 시선과 한층 깊어진 예술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 무대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했던 경험을 연기에 단단히 녹여내고, 나아가 연극이라는 매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입체적인 창작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남경진

b.1999

미술/영상·조각·설치

@nkj2721

2026 청년예술지원 시각분야

영상과 조각, 그리고 설치를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는 남경진입니다. 신체를 중심으로 하며, 이를 둘러싼 사회와 문화·제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가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그 영향이 오가는 사이, 느슨하게 엮힌 미심쩍은 순간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천만아트포영 해와상과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유의미하게 첫 작업을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021년입니다. 당시 진행한 작업은 제사의 구조와 나폴리탄 괴담의 형식을 엮은 〈헛제사〉라는 영상입니다. 과제나 단발성 프로젝트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데, 처음으로 영상의 형식적 구조와 개념적 구조를 전부 고려하면서 기간 내에 완결성 있게 마무리한 경험이었고, 구상 단계부터 촬영 그리고 후반 작업까지 즐겁게 진행한 작업이라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래도 영상 매체에 대한 흥미가 다른 매체에 비해 크기는 했지만, 해당 경험을 통해서 영상 작업을 지속할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 자신을 창작자라고 정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기도 했고, 슬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시점이기예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이따금 흥미로운 것이 떠오르면 이것을 작업의 형태로 만들고 싶다고 느끼는데, 그럴 때 창작자라고 자각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에 선정돼 개인전 《망아지 슬리퍼 Foul Slippers》(가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인간의 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가 두꺼운 굳은살로 덮여 있지만, 태어난 직후의 발은 다른 살결처럼 부드러웠을 겁니다. 보행이 가하는 지속적인 압력이 발을 단단하게 만든 셈이죠. 이동과 발, 단단함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던 어느 날 ‘망아지 슬리퍼’를 알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 어미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망아지의 발굽을 감싸고 있는, 부드럽고 미끄러운 조직입니다. 이걸 시간이 지나면 굳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벗겨지면서 단단한 발굽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행과 함께 단단해지는 인간의 발, 보행과 함께 단단함이 드러나는 망아지의 발굽. 전혀 다르고 생각한 두 신체가 이동이라는 지점에서 포개지는 데 영감을 얻었습니다.

사실 말과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겹쳐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교통수단과 탑승자의 관계였죠. 탑승자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성립된 그 관계가 신체의 유사성으로 다시 겹치는 지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에서 말은 실체를 잃고 속도와 진보의 상징으로만 남아 지명이나 경마장, 로고와 동상 정도로 떠돕니다. 이동하는 신체이자 교통수단이던 말이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잔존한다는 데서, 제 관심은 이동과 교통수단, 그리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도시로 확장됐습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도시는 이동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보조합니다. 촘촘한 대중교통 노선과 환승 시스템, 특정 금액으로 무제한 미끄러질 수 있게 해주는 정액형 교통권, 그리고 대중교통이 닿기 애매한 사각지대를 메우는 공유 모빌리티까지. 도시는 사각지대를 허용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구간에서 걷지 않도록, 미끄러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마찰을 잃은 우리의 발은 단단해질 필요가 없고, 망아지 슬리퍼는 끝내 벗겨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도시는 사람을 미끄러지게 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점점 매끄러워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선형적인 발전과 개발 신화의 낙관 속에서 철거와 신축이 반복되고, 표면은 계속 포장됩니다. 사람들은 그 순환을 발전이라고 부르지만, 도시의 미래는 늘 ‘곧 완성될 무언가’로 남죠. 발이 딛지 못하는 도시와 멈추지 못하는 개발, 그 사이의 부드럽고 미끄러운 충위를 들여다보면서, 미끄러운 도시 위에서 우리가 어느새 잃어버린 감각, 바닥을 딛고 보행하는 그 감각은 어떤 것이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주로 일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정보들을 모아둡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가, 일을 하다가, 여가를 보내다가 마주치

게 되는 흥미로운 정보를 기록합니다. 또한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해두면 궁금했던, 혹은 흥미로운 정보와 더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집하는 정보는 사진부터 영상·텍스트입니다. 수집한 정보 혹은 메모들은 기록 후에 잠시 잊힐 때도 있지만, 어떤 정보들은 계속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펼쳐 놓고, 이것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면서 작업으로 발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망아지 슬리퍼〉, 2026,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어려웠을 것 같으나, 1시간가량 배우가 잘 수행해냈다는 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무대 세트가 없었지만, 최소한의 소품과 조명만으로 짜임새 있게 풀어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배우의 상황 묘사와 신체 연기로만 장소나 날짜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연극은 제가 주로 다루는 영상 매체와 선형적인 시간 안에서 흐른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퍼포먼스와 같이 신체라는 물성이 강한 매체인 것 같아서 더 흥미로웠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서점극장 라블레에서 주최한 니콜라이 고골의 동명 단편 소설을 바탕으로 한 연극 〈외투〉가 인상 깊었습니다. 장르는 일종의 블랙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써 많은 돈을 투자해 만든 외투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는 주인공, 그와 외투를 둘러싼 부조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지점들에 주목하면서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원래 블랙코미디를 좋아하지만, 실험적인 1인극 형식의 연극이라 궁금해하며 관람했습니다. 일인 다역은 기본인 테다, 원작이 러시아 소설이다보니 지명이나 이름 등을 암기하고 발음하는 것이

앞으로는 조각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영상은 즉각적인 물성이 상대적으로 희미하다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 전시실 내에서 즉각적으로 물성이 드러나는 조각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도 조각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작업량을 늘려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성과 재료에 대한 연구나 실험을 더 많이 하고, 결국 조각이라는 매체가 제 작업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상은 이미 춤으로 가득합니다”

대한무용협회 조남규 이사장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협력관

조남규 대한무용협회 이사장과 무용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대화가 한곳으로 모아진다. 그것은 ‘관객’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고 뛰어난 무용수를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춤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 생태계는 완성될 수 없다는 이유다. 특히 그가 말하는 관객은 이미 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무용을 접해본 적 없는 이들, 공연장 앞에서 망설이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다.

대한무용협회는 서울무용제와 전국무용제 등을 통해 오랫동안 무용가와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이를 단순히 공연을 여는 일로 한정하지 않았다.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무대에 오르고, 관객을 만나 다시 새로운 창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에서 펼쳐지는 굵직한 행사들은 그가 말하는 선순환이 실제 도시 안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지역 춤이 서울에 오르는 의미

제35회 전국무용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각 지역에서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무용단체가 지역의 이름을 달고 서울에 모인다는 점에서 조남규 이사장은 이번 무용제를 특별하게 바라봤다. 지역 민간 무용단이 자체적으로 서울 공연을 올리려면 공연장 대관부터 제작비와 홍보까지 만만치 않은 현실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기에 지역을 대표해 서울 무대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무용가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성취가 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용가들에게 서울에서 공연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의 꿈입니다.” 그는 전국무용제를 전국체전에 비유했다. 각 시도에서 대표가 선발되고, 그들이 한곳에 모여 다시 경연을 펼친다는 점에서 닮았다. 하지만 그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어느 지역이 대통령상을 받느냐보다 전국무용제를 전후해 지역의 무용 생태계가 실제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서울의 관객과 기획자를 만나고, 공연이 끝난 뒤 또 다른 무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 개최는 지역의 작품을 수도권에 소개하는 데서 나아가 지역과 서울 사이에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이 지역의 문화를 빨아들이는 중심지가 아니라 지역의 작품이 더 넓은 무대로 나가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가 전국무용제의 서울 개최를 ‘지역 무용 콘텐츠의 유통망을 넓히는 기회’로 바라보는 이유다.

그는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전국무용제 규정을 개정했다. 과거에는 출연 무용수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뒀어야 했는데, 무용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좋은 무용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경연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안무 경연인데 안무가가 작품에 맞는 무용수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경쟁 조건이 다르지 않냐”는 게 그의 판단이다. 지역 대표 안무가라는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출연 무용수의 지역 제한을 완화했고, 심사 역시 작품을 본 직후 개별적으로 점수를 입력하게 하는 등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꿨다.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전국무용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분명해진다. 지역 무용을 활성화한다는 말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 무용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안무가도 좋은 작품으로 제대로 경쟁하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의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경연이 끝나는 순간 축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음 작품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국무용제 이야기를 마치고 서울무용제로 넘어가자 그의 말에 힘이 실렸다. 전국무용제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작품들의 경연이라면, 서울무용제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단연 ‘창작’이다. 기존 작품을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는 무대라는 점이 서울무용제의 정체성이란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울무용제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창작무용의 역사라고 봐야 합니다.”

서울무용제의 시작은 1979년 출범한 대한민국무용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처럼 다양한 창작지원 사업과 축제가 없던 시절, 새로운 작품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하는 흔치 않은 무대였다. 이후 한국무용과 현대무용·발레 각 장르를 대표하는 수많은 안무가가 이 무대를 거쳐갔고, 파격적인 실험도 이곳에서 이어졌다. 그가 서울무용제를 ‘안무가 탄생의 산실’이라고 부르는 배경에는 쌓인 시간이 있다.

그렇다고 오랜 역사만으로 서울무용제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지금까지 서울무용제가 ‘좋은 작품을 만드는 축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관객을 발굴하는 축제’라는 숙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공연장을 벗어나 시민의 생활 공간으로 무대를 확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작품의 수준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무용 앞에 다가설 때 느끼는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서울무용창작센터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표정과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이 공간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먼저 뜨거워진다”는 말이 나왔다. 무용을 위한 공공 거점을 갖는 것은 오랫동안 무용계가 품어온 바람이었고, 그 역시 공간을 계획하는 초기부터 무용계의 의견을 전달하며 상당한 공을 들였다. 전문 무용가들이 실제로 창작하고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그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됐다.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주문도 분명하다. “무용가들이 가장 먼저 찾고 싶은 공간이 될 때, 비로소 무용의 메카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무용가가 연구하고 실험하며 작품을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과 지역 사회로 이어지는 곳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간의 가치는 건물의 규모보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관객과 창작이 시작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로 들었다.

‘춤의 해’로부터 다시 만나는

올해 제2회 서울어텀페스타에서 무용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조남규 이사장은 30여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렸다. 1992년 정부가 예술 분야를 하나씩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선택한 장르가 바로 ‘춤’이었다. 당시 ‘춤의 해’를 거치며 무용계에는 여러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졌고, 전국무용제를 비롯한 사업이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 그렇기에 그는 2026년 서울이 다시 춤을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을 남다르게 바라보고 있었다.

올가을에는 전국무용제와 서울무용제가 서울에서 펼쳐지고, 서울어텀페스타라는 큰 흐름 속에서 무용이 시민의 일상 가까이 들어온다. 특히 그가 주목하는 것은 야외 공간이다. “무용은 대중성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보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은 작품 자체보다 사람들이 극장까지 오게 만드는 일이죠.”

공연장 밖에서 만나는 춤은 출발부터 다르다. 공원이

나 광장을 지나던 시민이 발걸음을 멈추고 몇 분이라도 그 장면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생애 처음 만나는 무용이 될 수 있다. 그 첫 경험에서 ‘무용 재미있네’ 하는 감각 하나만 남아도 다음에는 스스로 공연장을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가 올해 서울의 여러 무용 행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대한 지점도 결국 새로운 관객의 발굴이다.

그는 무용계 내부의 현실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았다. 대중성을 확보한 일부 단체를 제외하면 공연장을 찾는 관객 상당수가 동료 무용인이거나 무용 관계자인 경우가 많고, 서로 공연을 봐주는, 이른바 ‘품앗이’ 문화도 여전하다고 고백했다. “우리끼리 객석을 꽉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용인끼리 보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용계가 익숙한 울타리를 넘어 시민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 말 안에 담겨 있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엉뚱한 부탁을 했다. 무용 공연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여전히 무용을 어렵게 생각하는 ‘옆집 사람’에게 한마디해달라고.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춤은 원래 일상”이라고 말했다. TV 속 K-팝 안무를 보고 즐거워하고 음악이 들리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면서도, 이상하게 공연장에 올라온 춤 앞에서 무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부터 갖는 것이다.

“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무용수의 움직임과 땀, 호흡을 그냥 느껴세요. 정답이 없는 예술이잖아요.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조남규 이사장은 올해 서울에서 펼쳐지는 서울어텀페스타를 ‘선물 세트’에 비유했다. 전국에서 올라온 춤, 서울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춤이 있으며, 극장 안과 광장 밖의 춤이 한꺼번에 시민을 기다린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보니 그가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한 ‘무용의 대중화’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았다. 한 번도 춤을 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단 한 번이라도 춤과 마주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어쩌면 여기부터 새로운 무용이 시작될지 모른다.



이대원(1921-2005)
농원
1983
캔버스에 유화 물감, 112×162cm
국립현대미술관



그의 그림에 슬픔이 보이지 않는 것은 슬픔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많은 역할과 책임을 감당했고, 그 모든 이름을 잠시 내려놓은 농원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 밝음의 안쪽에 깃든 축적과 절제의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그가 도달한 환하고 평정한 세계와 만나게 된다.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세계와.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전시 소개

[문화+서울]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대학로예술극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용산/은평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장예예술창작센터 신당창작아카데미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유종아트센터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서울예술정보 플랫폼

스파크

SPAC

Seoul Platform of Arts and Culture

09.04 (금)

새단장 오픈!

 예술작품의 서재

SPAC

Featured Books

아레테 퀴르넷 리사이틀

아레테 퀴르넷 리사이틀

PIT CALLS WALL

PIT CALLS WALL

호남 숲: 그 수확의 시간

호남 숲: 그 수확의 시간

SPAC

SPAC

SPAC

Basic Info

다 내 아이들

이성열

다 내 아이들

2025

11.28.19

Ai가 도와주는

스마트 작품등록

 AI 분석중

포스터 분석 후
Art Ambient Color,
텍스트 자동추출 등으로
작품등록이
간편해집니다

내 취향저격

큐레이션

 Curation 365

Genre & Format

Emotion Spectrum

Having Context

Accessibility & Convenience

Tactics & Themes

개인맞춤형

마이페이지

My

예술은 일상의 면적을 영혼에서 벗어나준다

Favorite Work

Recently seen

my Taste

관심 작품

최근 본 작품

내 취향 작품

서울예술취향지표

SAT

스파크 예술 취향 설문하고

Personal

를 설정하고

나에게 맞는 예술작품들을 만나보세요

 STCF

도발적 비평가

The Gutter Observer

김태도

김태도

S

T

C

F

관심 작품

최근 본 작품

내 취향 작품

SPAC 서울예술정보 플랫폼

https://spac.sfac.or.kr

+82 2 3290 7062

spac@sfac.or.kr

